

2007 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비교우위전환에 따른 중국의 무역정책의 선택

The Selec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Changing in
Chinese Trade Policies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두 위

비교우위전환에 따른 중국의 무역정책의 선택

The Selections of Comparative Advantage Changing in
Chinese Trade Policies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두 위

비교우위전환에 따른 중국의 무역정책의 선택

지도교수 박노경

이 논문을 무역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무 역 학 과

두 위

두위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_____ (인)

2006년 11월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5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계획 및 내용	7
제2절 연구배경 및 목적	7
제2장 비교우위원칙	10
제1절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의 학술논쟁	10
제2절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의 실례연구	15
제3장 관계요소분석	18
제1절 일개국의 비교우위 형성의 결정적 요소	18
1. 기술격차와 비교우위의 형성	18
2. 주어진 요소와 비교우위형성	19
제2절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의 결정적인 요소	21
1. 자본의 축적	21
2. 기술발전	23
3. 새로운 제도의 창조와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	25
4. 인력자본의 축적과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	29
제4장 모델논증	31
제1절 비교우위전환의 준비단계	31
제2절 비교우위전환의 제1단계	33

제3절	비교우위전환의 제2단계	37
제5장	무역정책	40
제1절	비교우위전환 제1단계의 무역정책선택	40
1.	대대적으로 작업집약형산업	40
2.	기존의 구비되지않은 비교우위의 자본과 기술집약형산업	44
3.	외국자본을 적극유치	45
4.	대외무역체계의 개혁과 제도창조를 적극 실시한다	46
제2절	비교우위전환의 제2단계에서 선택하는 무역정책	48
1.	보호 업종의 선택	49
2.	국제규칙에 부합되는 적당한 보호조치를 도입한다	50
3.	국내시장 역할의 발휘를 중시하고 국내시장으로 비교우위의 전환을 지지한다	51
제6장	중국의 무역정책 선택	53
제1절	중국의 비교우위전환의 현재상황	53
1.	중국의 비교우위전환역사에 대한 회고	53
2.	중국의 산업구조 현재상황	54
3.	중국의 무역구조 현재상황	56
4.	중국의 각종 수출제품의 비교우위분석	56
제2절	중국의 국제적환경의 분석	60
1.	날로 깊어가는 글로벌경제일체화	60
2.	글로벌무역의 자유화발전과 새로운 무역보호주의가 공존하는 것이다	61
3.	WTO의 체계: 중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임규칙	62
제3절	중국의 무역정책 선택	63
1.	중국WTO 가입후	63

2.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무역정책수단.....	64
3. 외자정책.....	66
4. 제도개혁.....	67
제 7장 결론	69

표 목 차

<표2-1> 일본과 아세아 "네마리 용"의 관건산업 및 발전단계.....	17
<표4-1> 산업의연혁(비교우위전환).....	32
<표4-2> 자본변화(1).....	34
<표4-3> 자본변화(2)	35
<표4-4> 자본축적.....	36
<표4-5> 상품가격의 대응관계.....	36
<표6-1> 중국 수출의 비교우위전환 상황.....	55
<표6-2> 1985~1998년 중국의 LI,CI,TI 세 가지 종류의 공업제품생산가치구조.....	56
<표6-3> 1985년~1999년 중국3가지 종류 공업제품 수출구조.....	56
<표6-4> SITC를 단의 자리 수로 나뉜10가지 제품의 영문명칭.....	57
<표6-5> 중국이 미국시장에 수출한 제품의 비교우위지수 (RCA).....	59

ABSTRACT

Comparative Advantage Changing and Other Selections of Chinese Trade Policies

Du Wei

Advisor: Prof.Pank, Ro-kyung Ph.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basic actuating force of deviding work is comparative advantage.From utter comparative advantage of Smith to Ricardo's relative comparative advantage, from ELI.Heckscher and Bertil Ohlin 's Factor Endowments Theory to Dixit-Stiglitz Theory, and integration comparative advantage of inframarginal economics, the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experienced the process in which exogene comparative advantage and endogenesis comparative advantage were going together, single factor comparative advantage developed to multifactor comparative advantage.

After world war2 the countries which chose the stratagems of overtaking or import substitution failed in achieving the a development aim. But someother countries or areas got high accomplishment which did not use or used stratagems of overtaking and import substitution less. They are Korea, Honkong, Singapore, Taiwan,etc.

In china, the econmic is developed in disproportion way. The richer area shuold offer up in independent creation. After necessary

accumulateion, they should go out their traditional comparative advantage, and make up new economic growth model, which should be built up with their own industry status. In other area of China, comparative advantage thoery is also the baise fundamental, and develop their technology and make foamous brand.

제1장 서론

제 1 절 연구계획 및 내용

발빠른 글로벌의 경제적 발전에 따라점차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가이 국제적 분공에 융합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무역문제에 대한 논술은 최초의 비교우위이론으로 소급할 수 있는 것이다. 19세기 초기이카토가 비교코스트학설에서 처음 계통적으로 "비교우위"라는 개념을 제기하였고 따라서 헉세일-어림이 그에 대하여 보충으로 더욱 완벽하게 하였으며 요소천성이라는 설을 제기하였다. 이 두가지 이론은 비교우위이론의 전부내용을 구성하였다. 비교우위이론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자원 혹은 작업집약형식의 제품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을 뿐 자본과 기술 등 방면에서 선진국가와 비해 거대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응당자원 혹은 작업집약형식제품의 전문생산과 수출에 종사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서 무역이익을 챙겨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구성이 고급화로 지속발전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가운데서 비록 전문적인 작업집약형식의 제품생산이 일정한 무역이익을 가져 올 수 있지만 개발도상국의 공업발전은 상대적으로 낙후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한 개발도상국의 자본과 첨단기술제품에 있어서선진국가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무역이익의 분배에 있어서도 역시 개발도상국의 주요생산 저부가가치의 작업 혹은 자원집약형식의 제품으로 무역이익의 획득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가 사이의 빈부차별이 더욱더 심해짐으로서 "빈곤화 증가"가 나타나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배경 및 목적

개발도상국이 장기적인 경제적발전을 도모하려면 반드시 기존의 국제무역 질서와 국제적 분공의 국면을 타파하고 더욱 고급적인 국제적 분공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큰 무역이익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국내의 산업구조의 격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기존의 비교우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무역형식을 기존의 저부가가치, 저급기술 작업집약형식제품수출로부터 고급기술을 함유하는 고부가가치의 자본과기술집약형식제품수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비교우위 전환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현재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에 대한 논술이 비교적많은 것이다. 학술계에서는 비교우위전환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 있어서 공감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 어떠한 무역정책으로 비교우위의 전환을 실현할것인가에 대하여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학자들은 기존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에 참여한다면 도리어원래의 비교우위를 강화할 것이기에 개발도상국은 응당 기존의 비교우위를 타파하고 국내자본과 첨단기술산업을 부축함으로써 비교우위의 전환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학자로는 튀다로, 고우홍예, 텐춘화, 인상취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오직 비교우위의 정태방면을 중시하였을 뿐 동태방면을 홀시한 것으로 비교우위원칙이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에 부적절성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상 동태적으로 본다면 일개국의 비교우위는 장기적기간에서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과기술 등의 요소의증가에 따라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 밖에 기존 대다수 이론과견해는 충분한 취직의 가설기초에서 세워진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현실과틀린것이다. 때문에 기존이론의 가설전제에 대하여 개정하고 그 기초에서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문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논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

다. 개발도상국의 실제상황을 정확히 바라보고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에 대한 영향요소, 전환과정, 정책선택 등을 거쳐 완전한 계통적인 분석과 논술의 진행으로 비교우위전환에 충분한 이론지지와 가능성실천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중요한 현실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연구하는 목적인 것이다.

제2장 비교우위원칙: 개발도상국비교우위전환의 근본적 준칙

발빠른 경제적 글로벌의 발전에 따라 더욱더 많은 개발도상국이 국제분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제무역이론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자본, 기술 등 방면에서 선진국가와 비하여 격차가 크기에 자원 혹은 작업집약형식의 전문생산과 수출에 종사하여 무역이익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산업구조를 지속적으로 고급화하는 글로벌경제가운데서 전문적인 작업집약형식의 제품생산이 비록 일정한 무역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도상국의 공업발전에 있는 상대적 낙후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자본과 첨단기술제품에서 선진국에 대한 의존성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 무역이익의 분배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생산에 따르는 저부가가치작업 혹은 자원집약형식의 제품으로 획득하는 무역이익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가 지간의 빈부차별이 더욱 심해질 것이고 “빈곤화 증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면 반드시 기존의 국제적 무역질서와 국제적 분공구조를 타파하고 더욱 고급적인 분공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큰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러한에는 개발도상국이 국내의 산업구조격상을 실현하고 기존의 비교우위를 탈바꿈함으로써 무역형식이 기존의 저부가가치와 저급기술작업집약형식 제품수출로부터 고급기술함량, 고부가가치의 자본과 기술집약형식제품수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제1절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의 학술논쟁

응당 어떠한 무역정책으로 비교우위전환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현재 개

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에 대한 저술이 아주 많은 것이다. 학술계에서는 비교우위전환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서는 공감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비교우위전환을 실현하자면 비교우위원칙을 견지하여야 할것인지 아닌지?

린이푸(1994)¹⁾는 개발도상국은 옹당 비교우위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각자의 자원조건에 따라 작업집약형식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수출을 증가하여 자금을 축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발전과 자본의 축적에 따라 개인당 자본소유량과 자원형성구조가 향상되고 산업구조와 기술구조가 격상되며 주요산업이 작업집약형식으로부터 자본집약형식의 산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비교우위전환이 궁극적으로 완수되며 경제가 점차적으로 선진대열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을 가진 학자로는 또 리룽린(2000) 류리(1999) 등이 있다.

비교우위원칙은 무역과 경제발전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견해를 가진 학자도 많은 것이다. 19세기 리스터의 “단계보호무역론”으로부터 2차전쟁 후 개발도상국은 보편적으로 수입대체형식의 무역전략 실천을 실시하여 왔다. 그 기본 근거는 비교우위원칙이 개발도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세기 80년대 이후로부터 개발도상국이 잇달아 무역자유화의 실천을 실행하는 가운데서 비교우위원칙의 복귀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학자들은 이 원칙이 뒤떨어진 국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유명한 발전경제학자 토다로 (M·P·Todaro,1985)²⁾가 이 방면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는 <제3세계의 경제발전> 이라는 서적에서: “노동 코스트와 요소에 따르는 국제무역이론에서 양자 모두가 그 어떤 명확한 것과 숨겨져 있는 가설기초 위에 수립된 것으로 이러한 가설이 여러 방면에 있어서 80년

1) 林毅夫, "발전의 전략과 경제발전", 「중국의 기적」, 1994, pp.61-62.

2) M·P·Todaro, 「Economic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1995, p.12.

대 국제경제관계의 현실과는 많이 모순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이론은 늘 많은 개발도상국역사적인 것과 현재의 무역경험에 적용되지 않는 결론을 초래하는 것이다……특히는 만일 역사적 결실의 부유국가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본과 기업가능력 또한 기술노동 등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이러한 자원의 제품과 과정측면에서의 지속적인 전문화를 이용함으로써 앞날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과 경제적 자극을 창조할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는 풍부한 비기술적 노동을 소유하고 국제적 필수전망과 무역여건이 가능하게 불리한 제품으로 자신들이 일개 기술과 비생산적인 행사에서 '비교이익'이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정체적 처지에 가두어져 있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자체가 필수적 자본, 기업의 이념과 기술기능이 국내에서 증가됨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학자들은 비교우위원칙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 것이다. 20세기 80년대 초기 전 이런 학자들은 흔히 비교우위원칙이 자산계급의 착취속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현재 비교우위원칙을 부정하는 이유는 마치 일방적인 의식형태의 속박을 벗어나 철저한 학술적 형식인 듯하다(류리,1999).³⁾ 토다로와 마찬가지로 국내 일부 학자들도 역시 비교우위원칙이 정태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비교우위설은 일종 단기기간의 정태분석으로서 일개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비교우위구성을 고정화하고 후진국이 만일 비교우위원칙에 따를 시, 영원히 빈곤과 낙후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일찌기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학자로는 고우홍 예이다.⁴⁾ 그는 1982년도한 편의 논문에서 비교코스트학설은 지난 날 후진국에게 장기적으로 재난을 가져다 주었고 지금 역시 파괴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중국과 같은 이러한 후진국 역시 비교우위원칙에 따라 국제분공에 참여 한다면 영원히 초급적 제품과 노동집약형식제품의 수출국으로 되는 것이다. 탠춘화(1998) ⁵⁾역시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비교이익을 확립한 후

3) 劉力, 「내부지지와 외부개방 개발도상국 대국의 무역전략」, 1999, p.268.

4) 高鴻業, 「비교원가설은 우리의 대외무역발전전략의 이론기초로 될 수 없다」, 1992, pp.16-35.

영구적으로 향수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비교이익확설이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인 답안인 것이다. 이는 비교이익확설이 다만 정지되어 있는 시점의 관찰로 동태적인 과정의 변화를 홀시하였기 때문이다.……단순히 비교이익원칙에만 의거하고 근본적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하지 못하는 것은 비교이익확설의 정체성 이유로 곧 기존의 비교이익발휘에만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비교이익배양을 홀시하였기 때문이다.”

쉬젠빈,인상취(2001)⁶⁾는 비교우위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는 국가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단기간 내에 기존과 외생의 비교우위를 어기고 자신이 갖추고 있지 않는 비교우위 업체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각종 수단(인력자본투자, 기술모방, 전문화의 경제)을 거쳐 기술축적을 하여 내부의 비교우위 성장을 획득하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기간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어기는 것으로 무역의 이익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지만 기술축적이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본국의 비교우위는 곧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는 자신이 비교적 우월한 국제분공위치에 들어설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본국이 곧바로 우월한 국제적분공 위치로 더욱 많은 무역이익을 획득하도록 하고 또한 전문적으로 첨단 기술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장기적인 경제신장에 유익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요소에 따르는 상황은 자연적자원과 충족한 노동력과 자본과 기술이 결핍한 것이다. 이것이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가 초급적제품과 노동집약형식의 제품생산을 결정한 것이다. 만일 비교우위가 응고되고 변하지 않는다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것으로 출발점은 긍정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염려를 비교우위원칙과 같이 연계한다는 것은 과학적이 못 되는 것이다.

우선 이러한 학자들은 일방적으로 비교우위원칙을 이해한 것이다. 물론 비교우위 확설은 정태분석의 측면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종 경제학의 연구방법으로 특정의 용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비교우위의 구성을 어느 시점에

5) 田春華, 「산업정책과 비교이익」, 1998, p127.

6) 徐建斌, 尹翔碩, 「무역조건악화와 비교우위전략의 유효성」, 2001, pp32-39.

한정시킨다면 국제무역에 발생하는 원인, 취향과 결실의 분석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확실히 비교우위학설의 정태모델은 국제무역구성의 장기적인 변화를 해석할 수 없지만 그의 동태모델은 완전히 보강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비교우위학설의 동태모델에 따르면 어느 나라의 비교우위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일개국 요소의 수급상황변화에 따라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낡은 비교우위가 점차 상실되고 새로운 비교우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일개국의 비교우위가 변동을 일으킨 후 산업구조와 무역구조도 따라 개변되는 것이다. 때문에 비교우위 학설은 정태모델과 동태모델 두 측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오직 정태모델에서만 출발하여 비교우위원칙을 부정한다는 것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것이다. 7)

만일 정태와 동태 두 측면에서 완전하게 비교우위원칙을 이해한다면 개발도상국이 비교우위원칙에 따르는 것으로 손실을 초래한다는 염려는 필요없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초기, 노동력부유와 자본과 기술의 결핍의 요소에 따르는 상황은 비교우위가 작업집약형식제품에 있는 생산을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산업구조가 영원히 작업집약형식산업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경제발전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요소에 따르는 상황이 필연코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도 지속적으로 충분히 이용함으로써 결핍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과 기술 이 두 가지 생산요소도 지속적인 축적으로 점차 풍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는 작업집약형식제품생산에서 자본과 기술의 집약형식제품생산으로 전이되는 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이 비교우위원칙에 따른다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를 가져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을 순리롭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개발도상국이 비교우위원칙을 어기고 경제발전의 초기 자본과 기술집약형식의 산업을 우선 발전시킨다면 흔히 급히 먹는 밥에 채하는 격이 되는 것으로 경제발전에 여러가지 불리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우선

7) B·Balassa,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1971, p.39.

작업집약형식의 산업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 하여 실업을 더욱더 심각화 시키고 따라서 경제발전을 위한 자본의 축적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선 발전한 자본과 기술집약형식의 산업은 자본과 기술의 제약으로 발전이 느려지고 선진국과의 동업의 경쟁을 유지하기 곤란한 상태에 처해있을 수 있는 것이다.

제2절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의 실례연구

지난 수십년에 일본과 아세아 “네마리 용”⁸⁾을 대표한 개발도상국과 지역은 다른 발전 중의 경제단체와의 같은 시점에서 비교우위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비교우위와 국내산업구조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여 세계경제 가운데서 고속과 지속으로 경제를 발전시킨 전형이다. 그들의 경력이 비교우위원칙이 개발도상국 비교우위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실증으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제공하였다.

일본과 “네마리 용”의 발전경험으로 본다면 그들의 경제발전은 일종 순서에 따른 점차적 전진의 과정이다. 그들은 경제발전의 매개 단계에서 당시의 자원에 따르는 비교우위를 발휘하는 것으로 비교우위를 떠난 추월이 아니다. 표1-1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이러한 경제물체는 부동한 발전단계에서 부동한 비교우위로 이루어진 주요산업도 다른 것이다. 규칙의 공동점이라면 경제발전에 따라 자본축적, 매인당 평균 자본소유량의 제고, 자원에 따르는 구조의 향상, 주요산업이 종사하는 작업집약형식 에서 자본집약형식, 기술집약형식과 지식집약형식으로 점차적인 전환이다.

아세아 “네마리 용”(홍콩은 제외)은 경제발전 초기 모두가 수입대체정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물체는 전략을 추월하는 고원가와 무거운 대가로 일찌기 그 비교우위와 맞지않는 추월전략을 포기하고 자국의 자원에 따

8) 林毅夫, "비교우위와 발전전략", 「동아시아적에 대한 새로운 해석」, 1995, pp76-78.

르는 여건으로 작업집약형식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서 자본축적과 매인당 평균자본 소유량의 증가가 자원에 따르는 구조변화를 일으킨 것이다.9)자본의 소유량이 상대적으로 제고하고 동시에 아세아 “네마리 용”은 선진국이 산업구조조절에 제공하는 기회를 붙잡은 것이다. 본국과 본 지역의 자원에 따르는 구조변화의 실체는 비교우위원칙에 따라 적시에 자본집약형식의 산업을 주요산업으로 확정하고 제때에 빠른 시일로 자체의 산업구조향상과 비교우위전환을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공업화국가와 지역의 항렬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일본과 아세아 “네마리 용”의 경제발전의 실천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총체의 경제발전과정에서 비교우위원리를 따른 것은:노동력이 풍부한 비교우위에서 출발하여 작업집약형식의 산업을 거쳐 자원에 따르는 구조의 향상을 가속화하고 자본축적과 매인당 자본소유량의 증가에 따라 산업구조와 기술구조를 더욱 빠르게 격상시켜 주요산업을 작업집약형식으로부터 점차적으로 자본집약형, 기술집약형 또한 지식집약형식으로 전환 시키는 것으로 비교우위의 전환을 순리롭게 실현하여 최종 선진경제의 대오에 가입하는 것이다.10)

9) 일부 관점은 2차 세계전쟁 후 위의 국가 혹은 지역(특히는 일본)의 빠른 경제 발전은 주로 정부가 국내미숙산업에 대하여 부축과 보호의 결과라고 한다. 세계전쟁 후 일본은 "무역으로 국가 살리기" 전략을 실행하였고 소수의 중화학공업산업에 대한 부축으로 비교우위의 전환과 경제의 쾌속적 증강을 실현하였다.

10) 劉力 활점은전쟁 후10년내에(1945~1955), "일본의 무역구조는 여전히 수출작업집약형제품의 주로 하였다",때문에 이는 본문의 관점과 틀리지 않는 것이다.

<표2-1>일본과 아세아 “네마리 용”의 관건산업 및 발전단계

	일 본	한국	대만지역	홍콩지역	싱가포르
방직	1900~30,50 년대		60~ 70년대	50년대초기	60년 초기, 70년대
복장, 재봉	50년대		60년대	50~60년대	
완구, 시계, 구두			60~70년대	60~70년대	
야금		60년 초기 (시작)			
철강	50~60년대	60년 말 70년 초기 (시작)			
화학공업	60년대에서 70년대	60년대에서 70년대			
조선업	60~70년대	70년대			
전자	7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80년대		70년대
자동차	70~80년대	80년대			
컴퓨터와 반도체	80년대	80년대 말			
은행과 금융				70년대 말 80년대	80년대

자료: Ito,Takatoshi, Japanese Economic Development : Are Its Feature Idiosyncratic or Universal ,paper presented at the Xith Congress of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at Tunis, December 17-22,1999.

제3장 관계요소분석: 개발도상국비교우위전환의 결정적인 요소

제1절 일개국의 비교우위 형성의 결정적 요소

1. 기술격차와 비교우위의 형성

영국의 경제학자 대위리카토의 비교원가이론에 따라 만일 노동이 유일한 생산요소라하고 완전한 경쟁이고 규모수익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설하면 각국의 비교우위는 기술격차로(즉 노동생산율의 차이) 결정 되는 것이다.

만일 본국의 1개 단위를 생산하는 제품1과 제품2에 필요되는 노동이 각기 a_1 과 a_2 고 외국에서 1개 단위를 생산하는 제품1과 제품2에 필요되는 노동이 각기 a_1^* 와 a_2^* 이다. 그리고 w 와 w^* 로 본국과 외국의 임금수평을(동일한 화폐라고 가설) 표시 하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a_1w 와 a_2w 로 본국의 제품 1과2의 단위적 원가를 표시 하고 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a_1^*w^*$ 와 $a_2^*w^*$ 로 외국제품1과2의 단위적 원가를 표시 하는 것이다. 만일 $a_1w/a_2w < a_1^*w^*/a_2^*w^*$, 즉 $a_1/a_2 < a_1^*/a_2^*$, 이것은 본국이 제품 1의 생산에서 비교우위가 있고 외국은 제품2의 생산에서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이다.

보다싶이 일개국의 제품생산에서 나타내는 비교우위는 노동생산율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다. 또한 각국의 노동생산율의 격차는 근본적으로 기술수평의 격차이다. 때문에 기술격차가 일개국의 비교우위를 결정하는 한개 요소인 것이다. 11)

11)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비교우위의 전환은 자원집약형이 작업집약형으로 전환, 작업집약형이 자본 집약형으로 전환 또는 자본집약형이 기술과 지식집약형으로의 전환을 포함한 것이다.

2. 주어진 요소와 비교우위 형성

허커세열 어림은 주어진 요소의 학설에서 인정하기를 각국의 주어진 요소 여건 차이점이 국제무역에서 각 나라가 각자의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근본원인인 것이다. 각국이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생산요소의 비율은 같지만 부동한 제품의 생산에서 사용하는 생산요소의 비율은 같지 않은 것이다. 동시 각 나라의 생산요소의 풍부한 정도도 다른 것으로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의 노동보수가 상대적으로 싼 것으로 그 나라의 노동집약형식 산업의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자본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의 자본보수가 상대적으로 싸기에 자본을 많이 사용하는 자본 집약형식산업의 생산원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다. 이로하여 주어진 자원의 여건이 부동한 국가 지간의 비교원가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다.

만약 P_1, a_1, W, b_1, R 로 본국 제품1의 생산원가, 노동투입량, 임금수평, 자본투입량과 이자율을 표시한다면 제품1의 생산원가와 기타 변수지간에 아래와 같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P_1 = a_1W + b_1R$

$$\text{역시 바꾸어 쓴다면: } P_1 = a_1R(W/R + b_1/a_1) = a_1R(w + k_1) \quad (2-1)$$

그중 w 는 임금과 이자율의 비율(W/R) 혹은 요소가격의 비율을 대표하는 것이고 k_1 는 제품1의 자본노동비율(b_1/a_1) 혹은 요소집약정도를 대표하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제품2의 생산원가와 기타 변수지간의 관계를 아래와 같이 표시함 즉: $P_2 = a_2R(W/R + b_2/a_2) = a_2R(w + k_2)$ (2-2)

식 (2-1)와 (2-2) 가운데서 두 산업부문에서 지불하는 임금과 이자율이 같기에 두 부문의 요소가격비율도 같은 것이다. 하지만 두 부문의 요소집약정도는 다르다.¹²⁾

12) 분석을 간소화 하기 위하여 본 문은 오직 가장 보편적 의의가 있는 작업집약형이 자본집약형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연구를 하는 것이다. 때문에 특별한 설명 없이는 이후 제기되는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은 기본상 작업집약형 이 자본집약형으로 전환을 가르키는 것이다.

만일 두 가지 제품의 비교원가형식을 본다면 즉:

$$P1/P2 = a1(w+k1)/a2(w+k2)$$

외국의 두 가지 제품의 비교원가형식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도하면 즉:

$$P1^*/P2^* = a1^*(w^*+k1)/a2^*(w^*+k2)$$

두 나라의 비교원가격차의 공식으로:

$$\begin{aligned} P1/P2 - P1^*/P2^* &= a1/a2 \left[\frac{(w+k1)}{(w+k2)} - \frac{(w^*+k1)}{(w^*+k2)} \right] \\ &= a1/a2 \left[\frac{(w^* - w)(k1 - k2)}{(w+k1)(w^*+k2)} \right] \end{aligned} \quad (2-3)$$

공식(2-3)에서 보다싶이 두 나라의 비교원가의 격차는 두 나라의 요소가격 비율의 크고 작기($w^* - w$)와 두 부문간의 요소집약정도($k1 - k2$)의 크고 작기에 달린 것이다.

여기서 외국을 자본부유국가로 가설하면 외국의 임금이자율의 비율이 본국보다 큰 것이다. 즉 ($w^* > w$) ; 그리고 제품1의 생산부문을 자본집약형식산업이라 하면 즉

$$(k1 > k2) \text{로 곧: } P1/P2 > P1^*/P2^*$$

이때 본국의 생산제품1의 비교원가가 외국의 비교원가보다 큰 것으로 비교열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지만 제품2의 생산에서는 비교원가가 외국보다 적은 것으로 비교우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만일 본국을 자본부유국가로 가설한다면 본국의 임금 이자율비율이 외국보다 크기에 즉 ($w > w^*$), 상반되는 결론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로하여 요소결정확설은 일개국가에서 옹당 분공

생산하고 해당국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하고 싼 요소집약형의 제품을 수출하며 해당국에 상대적으로 결핍하고 비싼 요소 집약형의 제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응당 노동집약형의 제품을 수출하고 자본집약형의 제품을 수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제2절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의 결정적인 요소

비교우위는 각국지간 국제무역구조형성의 기초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일개국의 기존 비교우위형성을 결정하는 관계요소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시, 해당국의 비교우위 역시 상대적인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교우위는 일개국의 요소상황과 생산기술수평 등의 변화에 따라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비교우위의 전환은 여러가지 요소의 종합적작용의 결실인 것이다.

1. 자본의 축적

자원부여 학설은 일개국의 비교우위는 본국내의 부동한 생산요소의 부유정도와 관계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개국의 부동한 생산요소의 부유정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생산요소는 물질제품생산에 수요되는 각종 투입을 가르키는 것으로 일상적으로 자연자원,노동력자원,자본자원 세 가지로 나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기본 요소 가운데서 자연자원은 일반적으로 결정되어 있어 일단 충분한 탐측을 거친 저장 보존량은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노동력자원은 인구변화와 평균직업일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그 증가속도는 주로 인구증가율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각국 지간에 별로 큰 격차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1-3% 좌우인 것이다.다만 자본자원 증가만이 장기적으로 최대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국가지간에 거대한 격차가 존재 하는 것

이다. 어떤 국가는 연 평균이 20%~30%의 자본축적속도를 가지지만 어떤 국가는 오직 10% 혹은더욱 낮은 연평균자본축적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보편적으로 자본결핍,노동력과다의 문제에 부딪치게 되는 것으로 비교우위 전환의 해결책은 응당 자본노동비율 즉 매인당 평균자본의 소유량을 제고 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자본축적에 의거하여 실현하는 것이다.¹³⁾

자본축적은 일반적으로 국내저축과 관계되는 새로운 투자와 외국자본의 순수한 유치를 가르키는 것이다. 때문에 이는 국내투자 뿐만 아니라 국외 순수자본의 유치도 포함된 것이다. 국내 저축량이 많을수록 또한 국외 순수자본의 유치량이 클수록 자본의 축적이 더 빠르고 자본의 증가가 더욱 빠른 것이다.

충분한 취업조건하에서 우리들은 레이프진스끼 정리로 자본의 축적과 일개국의 비교우위변화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레이프진스끼의 정리로부터 알수 있듯 일개국의 자본축적량의 증가는 자본집약형식산업생산규모를 확장하고 생산량을 증가하여 작업집약형식산업규모가 위축되도록 하는 것이다.자본의 축적량이 증가하면 노동력이 작업집약형식산업에서 자본집약형식산업으로 전환되도록 하여 두 부분의 생산 규모에 변화가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축적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요소가격비율과 자본노동력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최종 비교우위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¹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충분하지 못한 취직환경이다. 때문에 자본의 쾌속증가는 한편으로는 요소가격비율을 제고시켜 자본과 노동 비율을 제고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향 노동력을 흡수하여 점차적으로 노동력시장에서의 과다 노동력의 상황을 완화시켜 최종 충분한 취직

13) M.P. Todaro의 정의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이란 평균수입이 나린 것 외 더욱 주요한 것은 6개 방면의 공동적인 특징이다. 즉 나린 생활수평, 낙후한 생산율, 비교적 높은 인구 증가율와 심각한 인구생활부담, 대량적인 노동력 유향, 농업생산과 초급적 제품에 대한 거대한 의존성, 국제경제관계에서 의존성 위상에 있음.

14)Victor A·Canto, J·Kimball Dietrich, 「Industrial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1992, p38.

을 실현하는 것이다. 충분한 취직이 실현되기 전 자본의 쾌속 증가로 야기되는 취직증가는 점차적으로 실업이 줄어들도록 하는 것이다. 자본과 취직의 증가의 상대적으로 빨라짐에 따라 노동력시장의 취직압력 이 완화되고 자본 결핍이 극복되는 것이다. 이시기의 임금은 인상되는 취향이고 이자율 도 따라서 인하되는 것이며 요소가격비율과 자본노동비율도 점차 제고되는 것으로 자본집약형식산업부문이 상대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실업이 존재하기에 자본노동비율의 제고와 부문지간의 요소이동은 충분한 취직환경시기와 같이 자본의 증가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새로 증가한 자본의 일부는 자본집약형산업부문에 유입되고 일부는 작업집약형산업부문에 유입되는 것으로 결국 이 두 부문의 생산규모가 모두 확장되어 최종 충분한 취직이 실현되는 것이다. 충분한 취직이 완성된 후 만일 개발도상국이 계속하여 자본의 쾌속증가를 유지한다면 산업의 구조조절과 비교우위의 전환이 동비례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직 자본의 지속적이고 쾌속적인 증가를 유지한다면 자본은 상대적으로 노동력에 비하여 더욱 풍부할 것이다. 자본원가가 노동력원가에 비하여 계속 인하됨에 따라 자본노동비율이 계속 제고되어 개발도상국이 점차적으로 국내산업구조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어 최종 비교우위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분석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오직 자본의 지속적 쾌속적인 증가를 유지한다면 정부의 무역보호 없이도 최종 비교우위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비교우위전환 초기, 취직 불충분의 존재가 자본축적량의 증가와 유희 노동력 흡수에 따라 자본집약형산업생산규모가 확장되는 동시 원래 있었던 비교우위를 갖춘 작업집약형산업부문생산규모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상대적으로 확장되는 것이고 무역량도 위축되지 않고 개발도상국의 무역이익이 손실되지 않는 것이다.

2. 기술발전

기술과 요소지간의 대체관계에 따라 기술발전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노동절약형의 기술발전. 즉 기술발전이 야기하는 자본이 노동에 대한 대체로 생산자본의 투입비중의 증가와 노동투입비중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 시기 만일 자본투입량이 변하지 않으면 노동을 절약하고 또한 생산에서 분리하여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노동량투입이 변하지 않으면 자본투입이 증가되고 사회자본의 증가 속도를 가속화 하는 것이다. 노동절약형의 기술발전은 자본노동비율을 제고시키기에 생산의 과정에서 자본의 비중을 계속 증가시키기에 자본증가형 기술발전이라 하는 것이다.

둘째, 자본절약형의 기술발전. 위의 상황과 달리 자본절약형 기술발전은 노동이 자본에 대한 대체로 생산에서 자본투입비중의 감소와 노동투입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자본노동비율을 인하시켜 노동증가형 기술발전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발전은 자본투입량이 변하지 않을 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노동투입량이 변하지 않을 시, 자본의 과잉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중성의 기술발전. 중성의 기술발전에 있어서 자본과 노동이 동비례로 감소되지만 자본과 노동의 배합비례 즉 자본노동비율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15)

앞의 두 가지 기술발전은 자본과 노동의 비율을 변화시키고 또한 일개국의 자원에 따르는 상대적으로 소유하는 량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자본이 상대적 결핍한 국가로는 노동증가형 기술발전은 자본의 수량을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자본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결핍한 국가로서는 자본증가형 기술발전이 상대적으로 노동력의 수량을 증가할 수 있어 노동력의 결핍을 보완한다.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직면하는 자금결핍과 노동력과잉 문제는 겉으로 보아 응당 노동증대형의 기술발전을 실행하여야 할 것 같지만 이러한 것은 개발도

15) 李榮林, 「동태의 국제무역이론」, 2000, pp131-149.

상국의 비교우위를 전환하지 못할뿐더러 도리어 기존의 비교우위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개발도상국이 비교우위전환을 실현하고자 할 때, 응당 적극적으로 자본증대형 기술발전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자본증대형 기술발전을 실시하는 전제하에 경제발전에 따라 매인당 평균 자본축적량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본이 상대적 노동에 대하여 점차 부유하게 되는 것이다. 기술발전의 변화는 해당국의 투자수량과 구조를 변화시키고 기존자원을 기초로 한 비교우위에서 유익한 자본의 변화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 각도에서 볼 때, 자본증대형 기술발전은 노동력의 대체요소로 생산에서의 요소투입비례를 변화시키고 비교우위의 장기적인 변화에 기초를 닦는 것이다.

자본증대형 기술발전은 자원수량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동시에 생산요소의 가격(자본요소가격이 점차 인하되고 노동력의 가격이 변화되지 않거나 혹은 약간 인하됨)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요소가격비율을 인상시켜 제품의 생산원가와 제공가격이 인하되게 하고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노동력요소의 작업집약형제품의 생산원가와 제공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제고시키는 것이다. 제품의 시장가격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 증가된 자본이 자본집약형의 부문으로 많이 유입되어 이 부문의 생산규모와 작업집약형의 부문에 비하여 더욱 빠른 속도로 확장되는 것이며 경제에서 산업구조와 비교우위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개발도상국에 대량의 실업이 존재하고 자본증대형 기술발전 또한 노동력이 경제에서 분리하여 나오도록 하여 실업문제를 더욱 격화하는 것이다. 하기에 개발도상국은 자본증대형 기술발전을 실시하는 동시 반드시 자본축적량을 가속화하여 유향 노동력을 흡수함으로써 취직의 압력을 완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3. 새로운 제도의 창조와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

새로운 제도의 경제학정의에 따라 제도라는 것은 제정된 일련의 규칙, 수칙 절차와 행위의 논리규범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주체의 복리를 추구하거나 혹은 개인행위를 최대화 하는 것을 제약하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의 창조는 낡은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과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세계경제에서 비록 경제적 글로벌이 갈수록 심각하여 지지만 오직 민족의 국가가 존재한다면 국제무역은 완전히 자유화 될 수 없는 것이다. 국제시장의 불완전 경쟁성과 현대기업규모경제의 존재로 또한 제도 역시 사람들이 창조하고 사람들의 경제적 행위규칙을 제약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제도의 창조는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기존의 비교우위를 더욱더 잘 이용하도록 하고 잠재하고 있는 비교우위를 성공적으로 전환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격려의 새로운 제도창조 자체가 아직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식되고 이해되지 않은 비교우위인 것이다.

새로운 제도창조는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에 중요한 촉진역할을 하는 것이다. 구체적 표현으로는:

가. 새로운 제도창조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에 유리한 것으로 기존 비교우위의 발휘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우선 새로운 제도창조는 기업의 인력자본의 축적에 유리하다. 기업의 측면에서 인력 자원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의 영향에 있어서 기업가 작용의 발휘에 돌출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국제적 상무영역에서 거래는 국내의 상무보다 더욱 복잡한 것이고 이행보증 역시 비교적 큰 불확정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때문에 거래의 성공은 기업가의 능력에 많이 달려있는 것이다. 새로운 무역이론은 규모경제를 무역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규모는 실제 상 기업가능력의 함수인 것이다. 기업가 능력의 발휘는 기업규모발전의 기본

전제의 하나인 것이다. 규모경제의 중요 원인의 하나는 기업가의 인력자본이다. 때문에 일개국의 제도 요소가 기업가로서 소유하고 있는 특수한 인력자본의 형성에 충족한 격려를 준다면 더욱 빠르게 국제무역과 국외시장에 능숙한 기업가를 배양할 것이고 해당국의 국제무역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기존의 비교우위발휘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제도창조는 기업의 조직구조에 유리한 것이다. 국제무역의 효과를 제고시키려면 반드시 개발도상국의 기업조직구조를 개선하고 단순한 거래의 관념에서 벗어나 전면적 시장개입의 현대적 국제비즈니스개념에 돌입하여 정보원이 정확하고 경로가 잘 통하며 반응이 빠른 국제적 마케팅네트를 수립하여 원래 오직 제품을 생산하여 중간상인에게 팔던 것을 수입상인, 도매상인, 심지어 대형슈퍼마켓과 체인상점에 까지 직접 팔수 있도록 하여 수출액의 이윤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제도창조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나. 새로운 제도의 창조는 정부의 지도역할을 더 훌륭하게 하여 비교우위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2차 전쟁 후50년의 경제역사가 보여주듯이 정부는 절대적인 보호자가 아니다. 루이스는 한 개 국가의 발전은 정부의 적극적인 자극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새로운 제도창조와 심도있는 경제체계의 개혁을 통하여 정부의 직능을 전환시키고 비교우위의 전환에 촉진작용을 하는 것이다.¹⁶⁾

한편으로 정부로서 대외경제개방의 범위를 넓혀 본국이 있는 요소의 품질

16) 여기서 가리키는 것은 이러한 국가 혹은 지역이 경제발전초기(세계전쟁 후 - 60년대 초기의 중기) 실행한 것은 수입대체전략이다. 단, 국내시장이 작고 자원이 결핍하는 등의 원인으로 수입대체전략은 이러한 경제체가 경제발전의 성공을 가져오게 할 수 없는 것이다.1959~1964년 기간 아세아 "4마리 용"이 선후로 수입대체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수출을 선도로 하는 외향적 경제발전 전략으로 돌아 선 것이다.

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일례로 대외무역의 발전은 외국의 선진적 기술을 더욱더 많이 도입과 습득 및 흡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본국기업이 이를 계기로 국제시장의 더 많은 경제무역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국외의 기술과 생산 및 시장의 수요상황을 요해할 수 있으며 국제시장의 경쟁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더욱 많은 기술적 창조를 격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첨단기술의 변화는 현재 갱신속도가 빠르고 제품생명주기가 짧은 배경에서 더욱 중요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는 “작은 폭의 이동밴드”(The Narrow Moving Band) 원칙에 따라 될수록 특정된 관건적 산업을 정확히 선택하고 적당한 정책지지를 받쳐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경제발전의 역사를 본다면 첨단기술산업의 경쟁우세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세워진 것이다. 정부로서는 첨단기술산업영역을 지지하는 문제 등의 심중한 결정에서는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 어느 정부도 앞날의 발전을 대표하는 관건적 산업 예로 컴퓨터, 전자수신, 생물기술 등 산업에서 정보가 불확인되는 가능성이 적은 것이다. 하기에 세계 각국 정부는 이런 산업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이 일단 성공하면 광범한 외부경제가 나타나고 일정한 국제적시장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무역정책의 초점은 일반적인 새로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관건적인 산업영역에서 비교우위를 창조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보호는 반드시 잠시적이고 적극적이며 반드시 기업의 경쟁참여노력을 촉진시켜야 하는 것이고 될수록 타국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시장경제체계를 더욱 완벽하게 하여 기업에 양호적인 외부경영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여기서 지적할 것은 국가는 국제경제추세에서 홀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경제주체이다. 국가지간의 격차, 정부효율의 격차도 일개국가의 비교우위 범위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국제무역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경제형식의 전환점에 있는 국가로서는 경제체제의 개혁과 정부직능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그 자체가 새로운 제도창조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되어야 한다.

4. 인력자본의 축적과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

인력자본은 서양의 경제학적 개념으로 노동자자체의 생산지식과 생산기능의 소유량을 말하는 것으로 이 축적은 노동력에 대한 교육, 양성 등 투자의 결실이다. 인력자본의 축적은 노동력소질의 개선, 지식의 증가와 기능의 제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더욱더 많은 단순 노동력이 숙련 노동력과 고급 노동력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인력자본의 축적과 노동력의 평균소질의 향상은 일개국가의 비교우위전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급적 제품생산으로부터 공업생산으로 전환되고 일반 공업제품생산으로부터 고급적인 공업제품생산으로 전환되며 이에 반드시 노동력의 소질 제고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은 공업제품과 초기제품에 비하여 또한 고급적인 공업 제품과 단순한 공업제품에 비하여 더 많고 더욱 선진적인 기계설비가 수요되고 더 많고 더욱 고급적인 과학기술이 수요되고 이러한 설비와 기술을 사용하는 노동력과 과학 기술인원과 기술노동자로 더욱 고급적인 작업의 투입이 수요되기 때문이다. 숙련 노동력의 확대와 숙련의 노동투입의 증가가 없이는 점차적으로 축적되는 물질자본과 기술을 사용할 수 없고 현실적 생산능력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이다. 어느 방면으로 본다면 인력자본은 국민경제발전의 최종기초이고 물질자본과 자연자원은 수동적인 생산요소인 것이다. 사람은 자본축적, 자원개발, 사회수립, 경제와 정치조직으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주요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비교우위이론의 분석은 오직 자본과 노동 두 가지 생산요소만 있는 것으로 가설 하는 것이다. 비교우위를 분석할 시, 역시 초점을 위의 두 가지 생산요소의 총량의 비례변화에 두어 어느 것의 생산요소가 상대적으로 부유한가 또는 결핍한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과 분석은 현실적 생산여건을 크게 간소화 하였다. 예로 노동을 간소한 동일한 성질로 보는 것

이다. 사실상 노동(력)이라는 생산요소는 질의 동일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량의 차이성도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하다 싶이 노동(력)이라는 것은 대체로 단순 노동(력)과 숙련 노동(력)으로 나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부동한 노동력은 부동한 물질의 생산여건과 서로 적응되는 것이다. 이것은 부동한 생산요소의 부유정도의 변화는 역시 노동력 내부의 부동한 소질의 노동력부유정도 변화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각종 생산요소총량비례의 구성변화는 노동력 자체의 부동한 소질의 노동력총량비례의 구성변화와 서로 적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일개 자본이 결핍하지만 자연자원과 노동력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국가로서 숙련노동(혹은 숙련노동력)이 상대적으로 결핍하고 단순한 노동(혹은 간단한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것이다. 자본이 자연자원과 노동력자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되었을 시, 반드시 숙련노동(혹은 숙련노동력)이 단순한 노동(혹은 단순한 노동력)보다 더 증가 되어야만이 비교우위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일개국가로서 생산요소의 부유정도변화와 비교우위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물질자본의 축적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반드시 상대적으로 인력자본의 축적을 강화하여야 하고 과학기술과 교육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비교우위전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없어서는 안되는 조건의 하나이다.

제4장 모델 논증: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 전환의 단계적 분석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 전환의 성공의 징표는 무역구성의 최종 전환이다. 즉 원래의 작업집약형제품의 수출에서 자본과 기술집약형제품의 수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본문의 제2부분의 분석에서 알다시피 자본의 축적, 기술의 발전 및 새로운 제도의 창조 등은 모두가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 전환의 본질은 국내 1인당평균자본의 소유량 즉 자본노동비율의 인상인 것이다. 때문에 분석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자본축적을 실례로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 전환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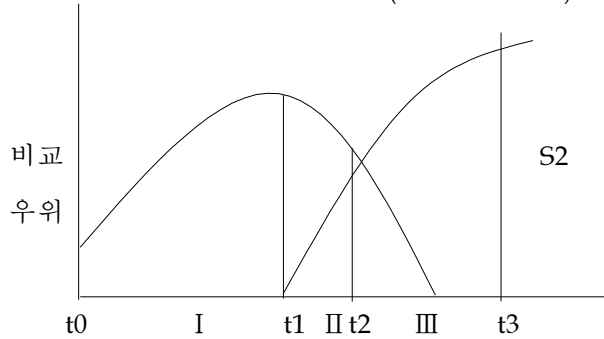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 전환의 부동한 시기에 나타나는 부동한 특징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 전환과정을 아래와 같이 세 개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제1절 비교우위 전환의 준비단계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어떠한 비교우위의 변화를 아래와 같은 3단계로 세분할 수 있다. 즉 점증(비교우위가 계속 증가 됨)단계, 체감(비교우위가 계속 약화 됨)단계, 상실(비교우위가 열세로 됨)단계이다.

17) 陳智遠, 「동태적 비교우위경험의 연구」, 2002, pp.132-134.

<표4-1>산업의연혁(비교우위전환)



자료: B·Balassa, 「Comparative Advantage, Trade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9.

<표4-1>의 곡선S1은 개발도상국의 노동집약형산업의 비교우위가 점증으로부터 상실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시한다. 곡선 S2는 자본집약형산업 비교우위의 변화 과정을 대표한다.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의 준비단계는 도표4-1의 제 I 단계(t0-t1)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의 작업집약형산업의 비교우위가 점증되는 것으로 작업집약형제품을 대량 수출하여 국내산업구성과 비교우위전환에 수요되는 자본과 기술을 획득하는 것이다.

산업 혹은 제품의 비교우위판단은 국제상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과시적 비교우 세의 수출지표”법이다.(The Export Index of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라고 약칭) 그 공식은:

$$RCA=(X_i/\sum X_i)/(X/\sum X)$$

그중Xi는 일개국 혹은 지역이 제i종류제품의 수출 총액이고 $\sum X_i$ 은 세계각국에서 제i종류제품의 총 수출액이다. X는 일개국 혹은 지역의 수출 총액이고 $\sum X$ 는 세계 각국에서 총 수출액인 것이다.

이 공식은 답이 1보다 큰가의 여부에 따라 일개국 혹은 지역의 어느 제품

에 비교우위가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표준이다.

만일 RCA_i 가 1보다 크다면 해당국 혹은 지역이 i 제품에서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1보다 큰 정도가 많을 수록 비교우위가 강한 것이다. 반대로 RCA_i 가 1보다 작을 시, i 제품이 해당국 혹은 지역에서 열세 제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1보다 작은 정도가 많을 수록 비교열세가 강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이 공식을 이용하여 본국의 산업이 비교우위가 있는지 여부를 또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제2절 비교우위 전환의 제1단계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 전환의 제1단계는 비교우위 전환의 시작으로부터 산업구성¹⁸⁾ 전환이 완수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두 나라에서 생산한 두 가지 제품의 기술이 변하지 않는 허커세일-어림 모델을 인입하고 자본축적량변화의 효과를 통하여 이 과정의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표4-2>, 사각형의 길이는 개발도상국의 실제취직인수 L 를 대표하고(비 총분의 취직이 존재하기에 L 는 실제노동 총 제공량 L^* 보다 작다) 높이는 자본 총 제공량 K 를 대표하는 것이다. 작업집약형제품 X_1 의 생산 중 요소 투입은 사각형의 좌측 아래의 O_1 점에서 평가를 시작하는 것이고 자본집약형제품 X_2 의 생산 중 요소의 투입은 사각형 우측 위의 O_2 에서부터 평가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미 주어진 X_1 제품의 생산요소 투입비례는 K_1/L_1 이다. X_1 부분의 자원사용은 반드시 직선 O_1A 위에 있는 것이고 X_2 부분의 자원사용은 반드시 직선 O_2B 에 있는 것이며 두 직선은 E_1 점에서 교차되는 것이다. 자원이 이 두 부문에서의 분배는 이 교차점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동시에 이 두 부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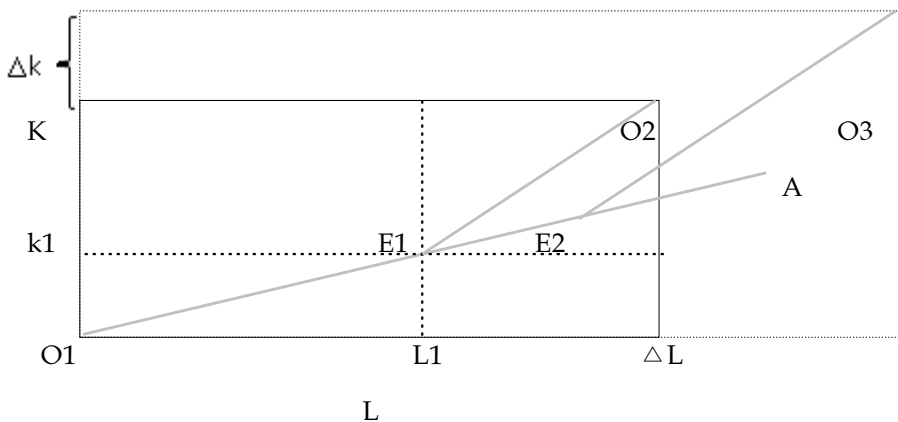
18) 산업구조란 일반적으로 일개국내 여러 산업부문의 산출구성 혹은 비례를 말한다. 수량에서 산업 구조지수(ISI)로 표시한다. 즉 모 일개산업의 $ISI = \frac{\text{그 산업의 생산고}}{\text{그 나라의 GDP}} \times 100\%$.

생산규모를 결정짓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자본의 쾌속축적에 따라 사각형의 높이는 곧 증가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노동력의 비충분 취직이 존재하기에 자본이 증가되는 동시에 유후 노동력을 흡수하는 것으로 노동력의 수량이 동등한 비례로 증가 되도록 하고 사각형의 길이도 동등한 비례로 충분취직까지 증가(즉 $\Delta K / \Delta L = K/L=k$)된다. 이때 자본집약형제품 X2의 생산에서 자원배치는 O3점에서 평가를 시작하는 것이다. 기술이 변하지 않는 가설로 즉 각 부문의 생산 중요요소투입비례가 변하지 않기에 자본축적량이 증가한 후 X2 제품의 생산과정의 자원이용은 반드시 O3B1 위에 있고 O1A와는 E2에서 교차된다. 19)

도표4-2에서 충분한 취직이 실현되기 전 자본축적량의 증가와 노동력의 흡수는 직선 O2B가 O3B1 로 병진하는 것이고 균형점이 E1부터 E2로 옮겨가는 것이다. 이때 X1과 X2의 두 가지 요소투입은 모두가 같은 동등비례로 확대되고 생산규모도 동등비례로 확장되는 것이다.

<표4-2>자본변화(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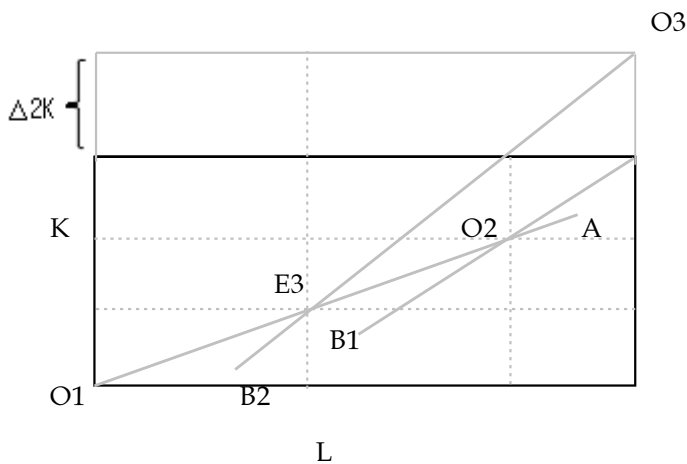


19) Paul R. Krugman,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and Policy」, 2000, p72.

자료: Mordechai E. Kreinn and Elias Dinopoulos, 「Protection of Industry」, Open Economies Review, 2001.

개발도상국에서 충분한 취직이 실현된 후 자본축적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사각형의 높이는 계속 증가되지만 사각형의 길이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때 X2 부문의 자원배치를 평가하는 직선 O3B1는 O4B2로 병진하는 것이고 균형점은 E3이다. <표4-3>을 참조.

<표4-3> 자본변화(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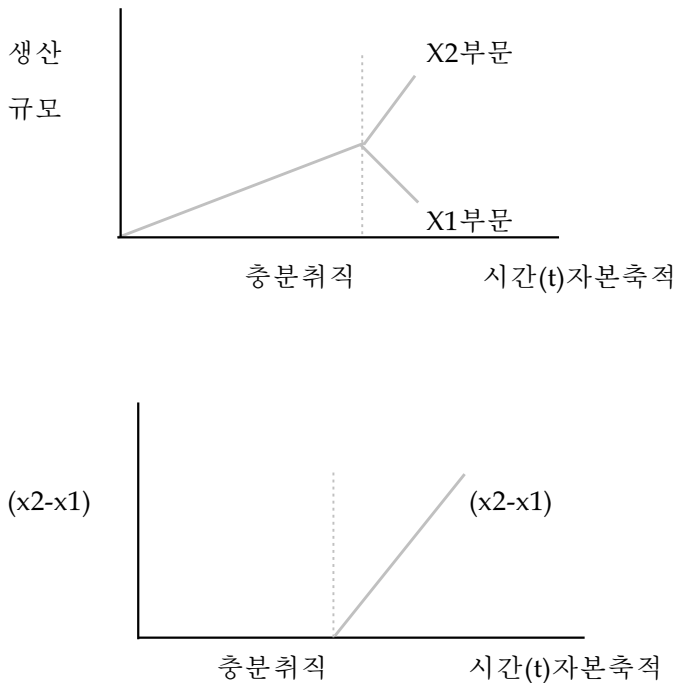


자료: Mordechai E. Kreinn and Elias Dinopoulos, 「Protection of Industry」, Open Economies Review, 2001.

<표4-3>으로부터 볼 수 있듯이 충분취직을 실현한 후 자본축적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자본집약형산업X2의 생산 중의 요소투입량이 증가되고 작업 집약형산업 X1의 생산 중의 요소투입이 감소되는 것이다. 즉 자본집약형의 생산규모가 계속 확장되고 작업집약형산업의 생산규모의 위축이 나타나는 것이다.

위의 분석을 거쳐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자본이 쾌속으로 축적되는 전제하에 개발도상국 각 산업부문의 생산규모는 곧 도표4-4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표4-4>자본축적



자료:Victor A·Canto and J·Kimball Dietrich, 「Industrial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JAI Press Inc., 2002.

<표4-4>에는 개발도상국의 자본의 지속적인 쾌속증가에 따라 또한 충분취직을 실현한 후 자본집약형산업생산규모가 작업집약형산업의 확장속도에 비하여 가속화로 상승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다. 때문에 비록 개발도상국이

작업집약형제품의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오직 자본의 지속적 또는 쾌속적인 증가 유지만이 산업구성의 전환을 최종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주의 할 점은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의 전환의 제1단계(<표4-1>에서의 제 II 단계: t_1-t_2)는 개발도상국의 대량적인 과잉노동의 흡수로 취직압력이 점차 완화되고 노동력의 원가가 상대적으로 인상되며 개발도상국이 작업집약형제품에서의 비교우위가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것이고 자본축적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t_2 점에서 산업구조가 작업집약형에서 자본집약형으로 전환을 완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교우위의 전환은 발생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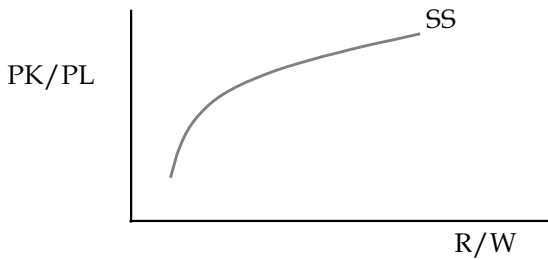
제3절 비교우위 전환의 제2단계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 전환의 제2단계는 산업구조 전환완성으로 무역구조²⁰⁾ 전환완성에 작용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우선 요소가격비율과 상품가격의 대응관계곡선을 인입한다. <표4-5>와 같이 만일 자본이 노동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면 이자율 R 이 임금을 W 에 비하여 하강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즉 R/W 이 작아지는 것이다. 밀집하게 자본요소를 사용하는 산업생산은 원가가 인하되기에 자본집약형제품의 상대적가격은 낮아지는 것이다. 즉 PK/PL 가 작아지는 것이다. 요소가격과 제품가격의 대응관계는 <표4-5>에서의 곡선 SS 로 표시한다.

20) 무역구조는 용당 수출구조와 수입구조 두 방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문의 분석에서 우리들은 주로 수출구조를 사용하여 무역구조의 구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즉 본문의 무역구조는 여러산업의 수출이 그 나라 GDP의 구성 혹은 비중을 가르키는 것이다.

<표4-5>상품가격의 대응관계



자료:Victor A·Canto and J·Kimball Dietrich, 「Industrial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JAI Press Inc., 2002.

앞에서 이미 분석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의 제2단계에서 비록 산업구조전환이 이미 완수되었지만 자본집약형산업의 생산규모는 이미 작업집약형산업 규모를 초과한 것이고 또한 자본의 축적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R/W도 점차 작아지고 PK/PL도 점차 인하되는 것이다. 하지만 변화 후의 상대적가격 PK/PL은 여전히 국제시장의 자본집약형제품의 상대적가격 PK^*/PL^* 보다 큰 것이다. 무역모델에 따라 이론을 결정하는 것이다. $PK/PL > PK^*/PL^*$ 으로 개발도상국의 무역모델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여전히 작업집약형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것이었다. 비교우위전환이 완성되지 못 하였다.

산업구조전환이 완수된 후 만일 개발도상국이 계속자본축적을 증가한다면 R/W를 계속 더 낮추고 PK/PL도 역시 더욱더 인하되는 것으로 최종 $PK/PL < PK^*/PL^*$ 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개발도상국의 무역모델이 이미 변화가 발생하여 원래의 작업집약형 제품수출이 자본집약형제품수출로 변화되는 것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이 이미 순조롭게 완수된 것이다.

중시하여야 할 점은 현실의 경제세계에는 많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한 많은 국가의 생산요소조건은 비슷한 것이다. 즉 같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우위는 모두 실현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다만 두 개 국가에 존재하는 이론모델 가운데서 일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는 다국적모델에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각국

의 같은 비교우위에서 실현되는가 하는 것은 그 각자들의 제품경쟁력에 달려 있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의 제2단계로 (<표4-1>의 제Ⅲ단계t2-t3)작업집약형제품의 비교우위는 이미 완전히 상실 혹은 곧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자본집약형산업과 타국과 비하여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기에 이 단계에서 개발도상국은 응당 적당한 정책과 조치를 거쳐 본국의 자본집약형산업의 생산원가를 내리고 국제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비교우위전환의 순리로운 완수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점은 본문의 제4부분에서 상세하게 논술하려한다.

제5장 무역정책:개발도상국 비교우위전환의 정책선택

위의 문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개발도상국 비교우위전환의 주요 요소는 자본의 축적, 기술발전, 새로운 제도의 창조 등을 포함하고 그 근본은 개발도상국의 자본 노동비율을 제고시키는 데 있다.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비교우위 전환과정에서 응당 자본의 쾌속축적과 기술발전 그리고 새로운 제도창조 등 방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자면 개발도상국은 응당 비교우위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전면적으로 개방을 실시하는 전제에서 적당하고 효과있는 무역정책으로 비교우위전환의 순리적인 완수를 촉진 하는 것이다.

제1절 비교우위전환 제1단계의 무역정책선택

비교우위전환의 제1단계에서 개발도상국국내의 경제발전수평은 비교적 나리고 산업구조는 작업집약형산업을 주로하며 작업집약형제품생산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내 는 것이다. 때문에 개발도상국은 이 단계에서의 무역정책을 기존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는 점에서 출발하여 비교우위의 최종전환을 위하여 필요되는 자본과 기술을 축적하는 것이다.

1. 대대적으로 작업집약형산업

개발도상국은 응당 본 국내의 풍부한 노동력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원가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작업집약형제품의 수출로 외화를 모으고 국내의 경제발전과 비교우위의 전환을 위하여 자금을 축적하여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자신에 걸맞는 무역정책을 적당하게 선택하여 국내 작업집약형제품의 수출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의 할 점은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는 무역정책은 시장의 가격과 자원배치에 있어서 인위적인 반전을 시켜서는 안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용의 지지는 수출의 보조보다 우월적인 것이다.

이밖에 중시해야 할 것은 크고 작은 개발도상국국가의 생산규모격차는 정책실시과 정에서 직면하는 국제적 환경도 다른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작업집약형제품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수량이 크고 시장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원인으로 타국시장에 일정한 충격을 초래할 수 있어 타국의 무역보복 레로 무역보호담을 쌓아 올려 본국의 제품이 타국시장에 진입하지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작은 나라인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때문에 개발도상국(주로는 큰 나라)은 국제 시장의 폭을 넓히고 본국의 작업집약형제품의 대규모적 수출을 위한 시장개발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응당 아래와 같은 점에 주의 하여야 한다.

가. 세계무역조직에 적극 참여하여 본국에 유리한 무역정책여건을 쟁취한다.

세계무역조직은 각국의 무역정책을 조절하고 국제무역규칙실시를 감독하는 권위적 조직으로 세계무역과 경제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응당 세계무역조직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본국의 무역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양호적인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선 세계무역조직의 정보자문과 정책심사 그리고 분쟁해결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 하고 이미 달성한 세계무역발전의 각종 규칙과 합의의 실시에 대한 보증하고 촉진을 감독하는 것이다. 예로 선진국이 우루과이 협상에서 1995년7월1일부터 시작한 10년 내에 점차적으로 개발도상국이 많이 피해 받는 <다중섬유협정>을 포기하기로 약속하였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개발도상

국 특히는 개발도상대국의 21)우세제품수출에 아주 유익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응당 세계무역조직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선진국의 약속을 감독하여야 한다.

그 밖에 세계무역조직에서 지나간 국제무역규칙을 수정하고 새로운 국제무역규칙을 제정하는 다국적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의 무역과 경제발전을 위한 공정, 합리, 유조의 국제무역규칙을 쟁취하는 것이다. 현재의 급선무는 세계무역조직의 “협상장” 역할을 충분히 이용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각국의 이익을 겸하여 고려하는 환경보호와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칙을 쟁취하는 것이며 제도상에서 선진국이 마음대로 환경보호와 노동자보호의 명목하에 무역보호를 실시하는 상황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무역조직의 무역규칙과 분쟁해결의 체계를 충분히 이용하여 본국에 관계되는 무역분쟁에서 자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타국의 불합리적 고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세계무역조직의 유관규칙으로 반격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일단 타국의 무역보호주의 행위가 있을 시, 개발도상국 역시 적극적인 태도로 우선 제때에 세계무역조직에 신고하고 따라서 세계무역조직의 분쟁해결 체계로 해결하는 것이다.

나. 수직형 경제일체화 그룹에 가입하여 국부의 무역자유화를 실현한다.

지역적 경제그룹의 속출은 현재 세계경제발전의 중요 특징이다. 유럽 동맹을 대표하는 선진국의 지역적 경제 일체화는 그룹을 조성한 각 멤버국가들의 무역공간을 크게 확대하여 이러한 국가들의 경제와 사회발전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국제적 무역자유화가 신속히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

21) 류리의 정의에 따르면 인구가 8000만 이상의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 대국이고 기타는 개발도상국의 작은 나라인 것이다. 인구규모의 차별로 동등한 평균수준 아래 개발도상국 대국과 작은 나라 지간에는 시장규모차별이 큰 것이다.

서 지역적인 경제집단에 참여하여 본국무역의 발전을 위하여 국부적 자유공간을 쟁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지역적 경제일체화 참여에 심중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참여 대상과 형식에 대하여 엄격히 선택하여야 한다.

22) 우선 개발도상국은 응당 참여하는 경제일체화의 상대방을 전통적인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선진국과 새로 일어서는 공업화 국가 혹은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즉 개발도 상국 지간의 수평적인 지역경제일체화로부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가와 새로 일어서는 공업화국가 혹은 지역의 수직형의 경제일체화로 바꾸는 것이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또는 새로 일어서는 공업화 국가 혹은 지역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강하고 상대방에 대한 수요가 절실하며 상호이익의 분공관계를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개발도상국 과 선진국가 또는 새로 일어서는 공업화국가 혹은 지역과 이루어진 지역적 경제그룹은 본국의 우세제품수출에 넓은 공간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선진국의 자유무역과 분공협조를 직접 이용하여 본국의 공업화를 신속히 완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은 응당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또는 지역의 경제일체화 형식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주요 원인은 두 가지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제발전 수평이 다르고 국내산업에 대한 보호정도도 다른 것으로 같은 대외관세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이다. 즉 관세동맹을 이룰 수 없다. 둘째, 자유무역지역은 수입국이 일방적으로 장벽을 낮추어 불필요한 무역이전의 손실을 모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면 지역외의 저렴한 원가제공원을 획득할 수 있다. 즉 개발도상국은 자유무역지역에 가입한 후에도 여전히 기타 국가 특히는 선진국가와의 무역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점은 선진국으로부터 선진적 기술장비를 수입하려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끝으로 apr시코가 북미주의 무역협정에 가입한 경험과 교훈으로부터 느끼

22) (미)토리 등, 「지역적 무역협정」, 1993, p39.

는 것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자유무역지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절차에 따라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효과적인 완충체계를 수립하며 될 수록 무역과 경제자유화가 본국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다. 국내시장의 “타국 무역장벽에 대한 작용”으로 본국 무역정책의 주동성 증강

개발도상국 특히는 대국의 개발도상국의 폭 넓은 국내시장은 타국무역장벽에 대해 여 중요한 제압작용을 하고 타국 특히는 선진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의 폭 넓은 시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무역보호주의정책을 실시할 시, 고려가 없는 것이 아니다. 개발도상국은 국내시장의 독특한 역할을 발휘하여 본국의 무역정책주동성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예로 양측 혹은 다각적 시장의 준 가입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은 폭 넓은 국내시장을 수단으로 하고 일정한 시장양보를 약속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시장을 개방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다. 또한 타국의 무역보호주의 행위 시, 개발도상국 대국은 해당국 상품의 수입으로 경고하거나 혹은 실제보복행위를 도입하여 상대방이 개발도상국 대국 시장을 상실할 고려로 부득불 자신들의 무역보호주의조치를 취소하도록 한다.

2. 기존의 구비되지않은 비교우위의 자본과 기술집약형산업

개발도상국이 비교우위전환과정에서 비교우위원칙을 따르는 산업발전도로를 견지하고 비교우위원칙의 낡은 산업발전모델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 어떻게 비교우위의 원칙을 버리고 사업을 발전시키는가 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부동한 기초에 따라 부동한 정책을 채용하는 것이다. 비교우위가 자원집약형 산업에만 있고 현대적 제조업이 없는 국가는 비교우위원칙의 지배하에 비교

우위전환하는 일반적인 모델에 따라 작업집약형산업을 새로 수립하는 첫걸음부터 절차에 따라 점차적으로 산업연혁과 비교우위전환을 실현하는 것이고 대량적인 비교우위의 작업집약형산업을 가지고 또한 비교열세의 자본과 기술 집약형산업이 존재하는 대다수 개발도상국으로는 우선 기존의 산업을 정확히 처리하고 점차적으로 비교우위원칙 지배 하에 비교우위전환하는 일반모델로 접근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비교우위의 작업집약형산업을 기동산업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응당 기존의 비교우위를 구비하지 않은 자본과 기술집약형산업을 정확히 처리하여야 한다. 자본과 기술집약형산업이 적고 작업집약형산업 또한 비교우위가 점증하는 개발도상국으로는 자본기술집약형산업을 잠시 포기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자원을 집중하여 작업집약형산업 및 관계되는 비무역적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후날 작업집약형 산업이 비교우위가 체감하는 단계에 이르고 국내의 자본과 기술의 축적이 일정한 정도에 도달했을 때, 다시 자본과 기술집약형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작업집약형산업의 비교우위가 금방 발휘되어 잠재력이 거대한 것이고 따라서 대량의 자본과 기술집약형 산업이 존재하는 국가로서는 응당 자본과 기술집약형산업의 보호와 지지를 포기하여 국제와 국내의 경쟁에서 우승열패를 실현하는 것이다.

비록 개발도상국은 높은 단계의 자본과 기술집약형산업으로부터 초급단계의 작업집약형산업으로 되돌아 왔지만 이것은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과정이다.

3. 외국자본을 적극유치

외국투자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비교우위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비교우위전환에 필요되는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여 개발도상국의 기술과 제도의 창조를 촉진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정

부로서 외국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로 국내산업구조의 조절과 격상에 촉진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각종 특혜정책과 조치의 제정으로 외국투자를 본국의 산업과 시장에 유치하는 것이다. 외자에 대한 특혜수단은 주로 외채관리정책, 세금납부특혜정책, 외화수지균형정책, 자금대출정책, 자주경영정책 등이다. 23)

4. 대외무역체계의 개혁과 제도창조를 적극 실시한다

가. 대외무역체계의 개혁을 심도있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대외무역의 체계와 정책 지간에는 심각한 내부적 관련이 존재하는 것이다. 대외무역 체계개혁은 기초이고 체계의 개혁은 시장경제변화를 통하여 세계경제와의 접속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의 접속이 없이는 무역정책자체는 영원히 효과가 없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 초기 대외무역체계방면에서 다소나마 문제가 있는 것이다. 중국을 예로 본다면 개방이 20여년 지났지만 중국의 대외무역체계는 실질적인 개혁이 진행되지 못 하였고 기업의 소유권문제와 시장주체의 문제도 본격적으로 해결되지 못 하였으며 정책성적인 수출손실도 오늘날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대외무역의 경영체계가 낙후하고 관리가 혼잡하며 창조성과 개혁의 정신이 결핍하여 대외무역발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응당 기업의 소유권개혁을 적극추진하고 기업이 확실한 독립적 법인의 실체와 시장경쟁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 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을 추구하는 내부적 격려를 견지할 수 있고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도 따라서 지속적으로 제고되며 비교우위 의 전환을 위한 기석이 든든하여 지는 것이다.

23)Mordechai E-Kreinn , Elias Dinopoulos, 「Protection of Industry」, 1995, p.6.

나. 대외무역경영의 관계법칙을 더욱 완벽하게 한다

개발도상국은 대외무역경영과 관계되는 법칙을 더욱 완벽하게 하여 한 면으로는 시장행위 규범화로 기업에 양호적인 경쟁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경쟁능력향상에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한 면으로는 일련의 법칙과 독점 반대법, 덤핑반대법을 제정하여 국내 산업부문에 합리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법률의 틀을 구축할 시, 국제와의 접선에 주의하여야 한다. 지도원칙, 입법정신, 입법기교 등 방면에서 국제표준으로 접근 하는 것이다.

다. 시장체계를 더욱 완벽하게 하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국내의 산업부문 특히는 자본집약형산업부문의 과분한 보호를 포기하여 시장경제의 우승열패규칙으로 지속적인 기술갱신, 원가인하, 품질제고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확실한 자유경쟁의 시장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시장체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제품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관건이다.

라. 수출의 지지방식을 재다시 확인한다

수출로 외화를 얻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지방식은 응당 개변하여 효과를 제고시켜야 한다. 개발도상국은 지지의 방식선택에 있어서 재정지지를 감소하고 금융적 지지를 대신하여 기업이 대외무역의 정책이 아니라 자체의 노력의 의거하여 비교우위를 발휘하는 것이다.

제2절 비교우위전환의 제2단계에서 선택하는 무역정책

개발도상국의 산업구조는 경제발전에 따라 이미 작업집약형산업에서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전환되고 국내의 취직 압력이 점차적으로 해소되었으며 국민수입이 인상된 것이다. 임금율의 제고에 따라 계속 인상되는 노동력 원가로 개발도상국의 작업집약형 산업의 비교우위는 점차 약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자본집약형산업의 비교우위가 이루어지지 못 하였기에 개발도상국은 무역정책의 선택에서 응당 새로운 비교우위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즉 이 단계에서의 개발도상국은 어떻게 무역의 동태적 이익을 이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주어야 하고 국외자금과 선진기술의 도입과 습득으로 본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절대로 국제시장의 점유와 수출을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

무역정책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은 외국자금과 선진기술을 계속 도입하는 동시에 새로운 무역제도를 계속 실시하고 부동한 산업에 실행하는 정책도 상대적인 조절을 하여야 한다.

비교우위의 원칙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작업집약형산업의 비교우위는 점차 상실되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작업집약형산업의 수출량을 목표로 하지 말아야 한다. 개발도 상국은 응당 작업집약형산업제품의 수출에 대한 지지를 포기하고 시장의 작용으로 산업의 우승열패와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비교우위가 아직 완전히 상실하지 않은 산업은 계속 우세를 발휘하고 비교우위를 상실한 업계는 시장의 경쟁에서 물러나거나 또는 전환되는 것이다.²⁴⁾

자본집약형산업에 대하여 해당국의 우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제시장의 경쟁력 이 갖추어지지 못 하였기에 개발도상국은 적당한 무역정책으로 비교우위전환의 완수를 촉진하는 것이다. 다만 본문에서 서술하는 비교우위원칙 아래 무역정책의 수단과 전통적 미숙산업에 대한 보호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24) 상황 비교우위지수는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를 가르키고 중국의 수출상품비중과 세계수출상품의 평균비중의 비율을 말한다.

것으로 구체적인 표현은 아래와 같다.

1. 보호 업종의 선택

개발도상국은 일부 업종을 미숙산업으로 선택하여 부축하고 보호할 때, 응당 비교우위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일반적 자본과 기술의 집약형산업의 보호를 포기한 후 소수의 발전성이 있고 비교우위의 잠재력이 있는 산업을 부축하는 것이다. 지지와 보호를 받는 업종의 선택은 반드시 시장과 경쟁의 체계를 거쳐야 만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우선, 큰 폭으로 국가의 보호와 지지를 취소하고 산업과 기업의 경쟁을 격려하는 것이다. 이시기 뒤 떨어진 산업과 기업은 자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시기 남아 있는 산업과 기업은 모두가 보호와 지지의 대상인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생존한 산업과 기업은 두 종류로 나뉘는 것이다. 하나는 앞서 단계의 조절을 거쳐 이미 경쟁력을 갖춘 산업과 기업으로 보호와 지지가 필요 없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록 잠시나마 생존할 수 있지만 보호와 지지가 완전히 취소된 후 뒤떨어 질 가능성이 있는 산업과 기업은 보호와 지지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보호와 지지의 대상을 확정할 시, 두 가지 상황을 구분하여야 한다. 첫째로 만일 고려하는 대상의 산업과 기업의 범위가 좁으면 보호와 지지의 부담이 적고 보호와 지지의 선택과정이 완료되는 것이다. 둘째로 만일 고려하는 대상의 산업과 기업의 범위가 넓으면 보호와 지지의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국내자원구조와 산업중요정도 및 관련정도 등의 요소에 따라 국내 자원구조에 부합되고 중요성이 강하며 관련정도가 큰 산업과 기업을 보호와 지지의 산업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2. 국제규칙에 부합되는 적당한 보호조치를 도입한다.

전통적인 무역전략에서 미숙산업에 대한 보호는 주로 높은 관세와 엄격한 비관세의 장벽을 쌓는 것이다. 새로운 다국적 무역체계-WTO체계의 틀 안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보호 수단은 이미 역할을 발휘하기 쉽지 않다. WTO체계의 “무역자유화”와 “일반적인 수량제한금지원칙”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관세 수준이 대대적으로 인하되고 전통보호적인 관세정책은 계속 견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과 같은 원칙에서 반드시 배정액과 수입허가증명 자동수출제한 등 비 관세 장벽을 취소하고 대신으로 투명도가 높고 공평성이 강한 관세조치를 이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WTO체계 아래 개발도상국은 반드시 전통적인 보호수단을 버리고 국제규칙에 부합되는 새로운 보호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포함되는 것은:

첫째, 공인된 국제무역규칙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여기에는 덤핑반대, 수당반대, 보장약관과 기술표준 등이다. 이러한 공인된 국제무역규칙은 개발도상국에서 미숙산업보호에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공구이다.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규칙을 이용하여 외국제품이 수입되어 본국의 동종류제품에 충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WTO의 규칙을 충분히 이용하여 개발도상국에 특혜대우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WTO규칙은 GATT의 원칙을 계승하고 확대한 것으로 개발도상국에 일정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특혜는GATT의 제18, 36, 37과 38 및 우루과이 협상의 <보장조치협약>, <무역기술장벽협약>, <정부구입협약>, <수당과 반수당협약>, <농산품협약> 등 규정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혜는 개발도상국이 미숙산업을 보호하는 중요한 근거이고 수단이다. 그 밖에 근래 개발도상국은 WTO의 무역자유화 배치에서 개발도상국에게 주는 기한

연기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전통적인 보호 수단을 도입하고 기타 조치와 함께 본국의 미숙산업이 기한연기기간에 성숙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셋째, 무역보호 “내부화”인 것이다. 많은 보호조치가 WTO규칙으로 공개적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은 일부 보호수단을 “내부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일부 직접적으로 외국상품수입을 배척하는 무역정책을 국내경제행사의 산업정책과 시장정책 등을 규범화하고 조절하며 규제를 위한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다. 예로 어떤 종류의 외국상품이 대량적으로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직접적인 무역보호조치를 도입하지 않고 “독점반대법”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3. 국내시장 역할의 발휘를 중시하고 국내시장으로 비교우위의 전환을 지지한다

국내시장은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에서 지지역할을 하는 주요 표현으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이 있다.

첫째, 자본집약형산업의 규모에 대한 역할이다. 개발도상국은 경제발전예 따라 국민 수입이 계속적으로 제고되고 자본집약형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며 국민소비수준 과 시장구매력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본국의 자본집약형제품에 대하여 강력한 흡수능력이 있는 것이며 본국의 자본집약형산업의 규모생산에 견고한 시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규모경제의 반응효과도 역시 본국의 제품원가를 인하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로서 국제시장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최종으로 비교우위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국외 자본과 기술 등 생산요소유입에 대한 역할이다. 개발도상국의 잠재력이 두터운 시장은 국외생산요소를 유치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국외생산요소 특히는 기술의 유치는 개발도상국의 최종적인 비교우위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자본집약형제품의 “저수지”작용이다. 개발도상국의 자본집약형제품의 비교우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경쟁력이 구비되지 않아 제품수출이 실현되지 못 한다. 개발도상국은 국내시장이 자본집약형제품에 대한 완충과 흡수를 이용하여 국내 시장에서의 판매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자본집약형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비교우위의 순리로운 전환을 실현하는 것이다.

제6장 중국의 무역정책 선택

제1절 중국의 비교우위전환의 현재상황

1. 중국의 비교우위전환역사에 대한 회고

개혁과 개방을 실시한 후로 중국은 시장경제에 초점을 두고 기존의 비교우위를 발휘함과 격상을 추구하였다. 수출의 구조로 보면 중국의 비교우위전환은 주로 아래와 같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양판,2001)²⁵⁾

첫 단계로는 80년대 중기 전 자원집약형의 초기적제품이 수출의 50%를 차지하였고 그 가운데 석유가25%인 것이다.1992년의 수출이 1억 달러 이상의 제품에서 순수한 자원류의 농산품과 광산품이 28종이고 자원집약형(업종의 물질소모량이 70%)제품이 20종으로 모두가 48종이며 수출의 46%를 차지하는 것이다. 작업집약형특징(업종의 생산가치에서 노동력소모가80%)이 36종이다. 중국의 수출자원은 비교적인 이익이 없는 것으로 17가지 큰 종류의 수출제품 가운데서 오직 석유와 석탄 그리고 건축자재만이 이익을 보는 것이다. 이후의 신속적인 경제발전으로 농산물과 광산물 제품 등의 자원우세는 완전히 잃어 버린 것이고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자원수입국으로 돌아 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는 80년대 중기에서 90년대 초기에 이르기까지는 작업집약형공업 제품의 수출을 주로 하였다. 기계와 운수설비의 수출비중이 1987년의 4.4%에서 1994년 의 18%로 증가되었고 1989년에는 공업제품이 총 수출액의 85.6%를 차지하였다.외상이 직접 투자하여 이끌어 나간 가공무역은 작업집약형제품과 공업제품수출이 자원집약형 제품을 대체한 결정적인 요소이다.

세 번째 단계로는 1994년 이후 공업제품수출이 심층가공으로 발전하였다.

25) 楊帆, 「비교우위의 동태성과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정책성 인도」, 2001.6, p.36.

기술과 자본의 함량이 높은 기계와 전자제품이 가장 큰 종류로 되었다. 1995년 수출이 435억 달러로 1년에 37% 증가하였고, 수출의 29.5%를 차지하였으며, 방직품의 25.5%를 초월하였다. 2000년의 중국 조선업 총 생산가치는 300억 달러로 수출의 주력산업으로 일어 선 것이다. 기계와 전자제품은 계획에 따르면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수출의 40%를 차지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중국의 비교우위가 작업집약형으로부터 작업-자본의 집약형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표6-1>는 근래 중국의 비교우위 전환의 구체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중국의 산업구조 현재상황

개혁과 개방이래 중국의 산업구조는 점차적으로 우월하여 지는 것이지만 현재 여전히 해소할 수 없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주로 나타나는 것은 :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크고 자본기술 집약형산업의 비중이 작은 것이다. <표6-2>에서와 같이 1998년의 공업제품 가운데서 작업집약형제품LI가 42.3% 차지하고 자본집약형제품CI의 비중은 오직 작업집약형제품보다 1.2% 포인트 높은 것이고 지식기술집약형제품TI의 비중은 더욱 낮은 것으로 다만 12.7%만 차지하는 것이다.

주의 하여야 할 점은 도표5-2에서 보다 깊게 98년도 중국공업제품의 생산가치구조 가운데서 자본집약형제품비중이 이미 작업집약형제품을 초월하였다. 즉 산업구조의 전환을 이미 초보적으로 완수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일정한 정도로는 건국초기 계획경제체계에서 중공업을 우선 발전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산업구조 유형은 완전히 시장규율과 각 산업자체의 비교우위에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니다. 다행한 것은 개혁과 개방 이후 중국시장경제체계의 수립과 완벽됨에 따라 이 문제가 이미 많이 달라졌다는 것이

다.

둘째, 생산요소에 엄중한 유후와 낭비가 존재한다. 중국에는 풍부한 자연자원이 있고 충족한 노동력자원과 과학연구성과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사실상 중국경제의 쾌속발전과 신속한 산업구조전환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력자원의 유후와 불합리적 이용, 일부 중공업부문에서 비교우위가 구비되지 않았지만 투자정책으로 고투입 저산출 방식, 과학연구성과가 신속히 생산력으로 전환되지 못 하는 등의 원인으로 이미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전환과 격상을 엄중히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표6-1> 중국 수출의 비교우위전환

	농산품	광산물	작업집약형	자본집약형	제조업
1978년					
상품비중(%)	36	17	31	15	46
국제시장배당(%)	0.5	0.5	2.2	0.2	0.6
비교우위지수	2	0.7	2.94	0.32	0.8
1985년					
상품비중(%)	21.7	28.8	35.5	12.9	50.4
국제시장배당(%)	2.3	1	5.2	0.4	1.2
비교우위지수	1.5	1.3	3.3	0.26	0.78
1990년					
상품비중(%)	12.4	9.4	50.8	26.8	80.1
국제시장배당(%)	2.4	1.6	10.3	1.2	2.8
비교우위지수	0.93	0.6	4	0.47	1.08
1993년					
상품비중(%)	9.2	4.7	56.8	28.8	87.9
국제시장배당(%)	3	1.6	17.4	2.1	4.8
비교우위지수	0.71	0.38	4.13	0.49	1.14

자료: 楊帆, 「비교우위의 동태성과 중국이WTO에 가입하는 정책지도」, 「관리세계」, 2001. 6.

셋째, 동태적 적응성이 부족하다. 이것은 주로 산업구조가 국외시장요구와

비교우위 변화에 적응되지 못하고 제때에 조절하지 못한 것이다.

<표6-2 > 1985~1998년 중국의 LI, CI, TI 세 가지 종류의 공업제품생산가치구조

(%)

연도	85	87	89	92	95	96	97	98
LI	50	48.8	48.8	46.1	45.5	46.1	44.2	42.3
CI	40	40.9	41.5	43.0	41.8	41.6	42.5	43.5
TI	9	9.8	9.2	10.5	12.2	11.9	12.2	12.7

자료:朱書軍등, 「비교우위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정책」, 2001.2.

3. 중국의 무역구조 현재상황

<표6-3> 1985년~1999년 중국3가지 종류 공업제품 수출구조.(85년~99년 중국의 LI, CI, TI 3가지 종류의 공업제품수출구조)

(%)

연도	85	87	89	92	95	96	97	98	99
LI	59.0	56.6	57.8	74.1	68.2	65.8	66	62.9	60.5
CI+TI	15.8	15.2	18.9	25.9	31.8	34.2	34	37.1	39.5

자료: 「중국대외경제무역년감」 1998, 1999년 및 대외경제무역부 통계수치에 관하여 TI가 비중이 좀 작으니까 CI하고 통합하다.

<표6-3>에서 보면 자본과 기술집약형제품의 수출 점유가 점차 오르는 것이다. 단, 중국의 수출구조에서 작업집약형제품이 60%이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한다. 중국의 무역 구조전환은 아직 완수되지 않은 것이다.

4. 중국의 각종 수출제품의 비교우위분석

아래의 분석에서 열거한 제품의 분류방법은 연방국사회산하에 설립한 통계위에서 공포한 <국제무역표준의 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SITC)에 따른 것이다.1972년에 수정한SITC는 국제무역상품을 10가지 63장 233조로 나뉘었다.²⁶⁾

아래에 분석한 제품은 주로 단의 자리를 10가지로 나뉜 것이다.

<표6-4> SITC를 단의 자리 수로 나뉜10가지 제품의 영문명칭

영문 명칭
0 Food and live animals chiefly for rood
1 Beverages and tobacco
2 Crude materials,inedible,except fuels
3 Minerul fuels,lubricants and related mate
4 Animal and vegetable oils,fats and waxes
5 Chemicals and related products, n.e.s.
6 Manufacturde goods classified chiefly
7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8 Miscellaneous manufactured articles
9 Commodities & trans.not classified

자료: 캐나다 「세계무역분석」, 1983-2000.

중국의 각종 수출제품의 비교우위를 분석할 시,본문은 파라사의 가시성 비교우위지 수법을 채용한 것이다.(통계수치의 채집이 곤란하여 계산 시 본문은 미국시장의 수입 액으로 국제시장의 수입액을 대체한 것이다.미국은 국제적으로 가장 큰 제품수입 시장이고 따라서 아세아 및 중국제품의 가장 큰 시

26)비교우위지수는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를 가르키고 중국의 수출상품비중과 세계수출 상품의 평균비중의 비율을 말한다.

장으로 미국을 목표시장으로 하는 것은 일정한 대표성이 있는 것이다.)그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²⁷⁾

$$RCA_{ij} = (X_{ij}/X_i)/(C_j/W)$$

그중: RCA_{ij} 는 그 국가 i 제품에서 j 의 비교우위지수를 가르키는 것이다.

X_{ij} 모 국가의 모 제품이 모 시장에 대한(본문은 미국시장으로 함) 수출액(USD/년)

X_i 모 국가에서 모 시장에 대한(본문은 미국시장으로 함)총 수출액(USD/년)

C_j 세계적으로 모 제품이 모 시장에 대한(본문은 미국시장으로 함) 총 수출액(USD/년)

W 모 시장(미국시장)의 총 수입액(USD/년)

(X_{ij}/X_i) 는 모 국가 i 의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한 그 나라의 모든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그 비율이 클 수록 그 나라의 j 제품이 미국에 대한 수출영향이 크다는 것을 말한다.

(C_j/W) 는 세계적으로 미국에 수출한 j 제품의 총액수가 미국의 수입 총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X_{ij}/X_i)/(C_j/W)$ 는 수치로 i 국가 j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우세를 표시한다. 즉 그 국가에서 그 제품의 비교우위 RCA 를 말한다.

모 국가 제품의 RCA 계수가 1보다 클 때 그 제품이 그 나라에서 비교적 강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시적 비교우위지수법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제품의 비교우위지수를 계산한 것이다.<표6-5>참조

27)국제무역의 분류법은 이미 수정 하였다. 원래의 10가지 분류가 지금의 9가지로 나뉘고 원래의 제 6종류와 제8종류를 "기본완성품"으로 합병하였다. 단, 통계자료의 곤란과 부동한 분류법에 따른 자료분석이 불편하여 본문은 여전히 1972년의 국제무역표준분류법에 따라 수치를 통계하고 분석한 것이다.

<표6-5> 중국이 미국시장에 수출한 제품의 비교우위지수 (RCA)

China	0_	1_	2_	3_	4_	5_	6_	7_	8_	9_
1983	0.871	0.148	2.977	0.383	0.833	2.956	1.610	0.020	3.839	0.194
1986	0.818	0.185	1.303	0.842	0.328	1.469	1.251	0.054	3.620	0.308
1990	1.075	0.269	1.473	1.526	0.332	1.666	1.601	0.057	2.516	0.000
1991	1.922	0.349	1.535	1.168	0.438	1.253	1.716	0.118	2.425	0.023
1992	1.534	0.231	1.583	1.348	0.152	1.489	1.607	0.156	2.272	0.000
1993	1.634	0.186	1.266	0.975	0.093	1.237	1.477	0.223	2.607	0.008
1994	1.180	0.251	1.046	0.850	0.053	1.102	1.543	0.249	2.776	0.005
1995	1.260	0.290	0.671	0.643	0.058	0.966	1.353	0.291	2.927	0.120
1996	0.627	0.213	0.424	0.211	0.066	0.637	0.961	0.403	3.403	0.111
1997	0.538	0.080	0.380	0.215	0.060	0.558	0.944	0.477	3.323	0.057
1998	0.564	0.064	0.434	0.213	0.039	0.611	1.048	0.517	3.241	0.036
1999	0.551	0.070	0.417	0.183	0.128	0.629	1.022	0.558	3.202	0.005
2000	0.488	0.070	0.440	0.161	0.130	0.612	0.998	0.581	3.128	0.002

자료: 範愛軍, 「중국 각종류 수출산업의 비교우위분석」, 2002.

<표6-5>에서와 같이 중국의 수출제품 가운데서 1차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공업제품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이다. 10가지 종류제품에서 앞의 5가지는 1차제품 종류이고 뒤의 5가지는 공업제품이다. 2000년과 1983년을 비해보면 중국의 5가지 1차 제품의 비교우위지수 RCA는 총체적으로 내려가는 경향이고 5가지 공업제품의 비교우위 지수는 총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중국에서 수출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은 주로 포함되는 것이 제8종류의 복장과 구두 및 메리야스 제품 등 이고 제6종류의 도자기 제품과 바닥커버, 못, 너트 등으로 이 두 종류의 상품은 주로 작업집약형제품이다. 자본집약형의 기계제조와 운수설비(제7종류)의 비교우위는 비록 매년 상승되고 있지만 여전히

히 낮은 수준이다. 기술집약형인 제9종류의 비교우위가 가장 약한 것이다.

위의 상황을 총괄하여 본다면 산업구조로 보아 중국은 현재 이미 산업구조를 작업집약형산업에서 자본집약형산업으로 전환시킨 것이지만 중국이 건국 초기의 계획경제체계 및 중공업의 우선발전의 전략적 영향으로 현재의 구조 상황은 완전한 시장체계의 산물이 아니다. 중국의 자본집약형산업에서의 경쟁력은 여전히 약한 것이다. 무역구조로 보아 중국의 수출제품구조 가운데서 작업집약형제품비율이 여전히 자본과 기술집약형제품비율보다 큰 것으로 중국의 무역구조전환이 아직 완수되지 못한 것이다. 중국의 각 종류 수출제품에서 나타나는 비교우위지수를 보면 중국의 수출제품 가운데서 비록 작업집약형제품의 비교우위가 점차적으로 약화되지만 총체적으로 여전히 강한 것이고 자본과 기술집약형제품의 비교우위는 여전히 약한 것으로 국제경쟁력이 아직 구비되지 않은 것이다.

본문의 제3부분에서 개발도상국의 비교우위전환 단계분석으로 보아 현재 중국은 비교우위전환의 제2단계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제2절 중국의 국제적환경의 분석

1. 날로 깊어가는 글로벌경제일체화

날로 깊어가는 글로벌경제일체화의 주요 표현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이 있다.

첫째,글로벌경제일체화의 초석인 국제분공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심층에서 보면 국제분공이 더욱 세밀화되는 것으로 지난 날 단일적인 수직형 분공이 수직형과 수평형 및 혼합형의 여러가지 형식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새로운 국면이다. 넓은 범위로 말하면 국제분공에 참여하는 국가와 지역은 이미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것이다. 둘째, 신속히 발전하는 국제무역이다 특히

는 산업 내부의 무역발전이 더욱 빠른 것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를 연계하는 중요한 유대인 것이다.셋째, 점차 빨라지는 국제 자본 ,기술, 노무 등 생산요소의 유동속도 특히는 자본의 유동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세계 각국경제의 상호적 의거성과 일체화정도를 한층더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적 투자는 이미 국제적무역과 함께 나란이 달리고 있는 것으로 세계 각국 경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유대로 활약하는 것이다. 넷째, 글로벌 전략을 신봉하는 다국적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것이다. 날로 번가로와 지는 다국적 생산과 경영을 거쳐 세계 각국의 경제를 일개 총체로 만드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20세기90년대 후로 세계 각국의 다국적기업은 이미 40000개로 들어 선 것이고 지회사와 계열회사는 세계의 160여개의 나라와 지역에 퍼져있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이 세계범위에서 생산요소배치, 공장설치와 자회사 설치로 생산조직, 경영과 판매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다섯째, 세계무역과 경제적 행사의 조절 체계가 날로 건전하여 지고 국제적 화폐펀드조직, 세계무역조직과 세계은행 등을 세계경제활약에 있어서 조절과 감독을 실시하는 국제적 조직으로 그들의 권위성과 역할은 갈수록 뚜렷하여 지는 것이다.28)

2. 글로벌무역의 자유화발전과 새로운 무역보호주의가 공존하는 것이다.

글로벌경제가 일체화로 빠르게 발전하는 동시 각국의 무역장벽은 여전히 부동한 정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각별히 유의할 점은 WTO의 각종 합의는 무역자유화 유지를 제공하는 동시 그 중의 일부규칙 예로 덤핑반대, 열라우언스 반대, 기술표준, 환경표준 등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대한 차별대우의 무역정책에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이다.첫째, 전통적인 보호조치가 계속 무역보호의 주요 수단으로 되는 것이다. 예로 선진국은 여전히 관세와 배정

28) 唐海燕, 「국제무역학」, 2001, p.68.

액으로 개발도상국의 제품수입에 장애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높은 관세는 주로 농산물, 방직품, 복장 등 개발도상국에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수출제품에 집중된 것이다. 예로 고기, 설탕, 밀크 등의 관세율은 100%를 초과하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은 본국의 석양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수출국에 대하여 반덤핑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2000년에 모두 53개 나라와 지역이 반덤핑관계 국가와 지역으로 지적받은바가 있다. 그 중 다수가 개발도상국인 것이다. 둘째, 각종 새로운 무역보호주의가 속출하는 것이다. 예로 유럽동맹이 수입제품에서 유럽표준위(CEN) 인증, 유럽동맹안전(CET) 인증과 (ISO9000)질량 인증의 최소 하나의 인증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1998년 미국농업부는 모든 중국에서 수입되는 목재포장의 검증과 검역에서 규정이 있었고 EU은 방직품, 완구, 구두 등 소비품을 주로한 26종류의 상품에서 ASOUN9000녹색표준을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 또한 일본의 1999년 발표한 새로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실시세칙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제품수출을 제한하는 장벽으로 되는 것이다. 그 밖에 선진국은 무역과 환경보호 무역과 노무표준 무역과 경쟁정책 등의 문제를 세계무역조직의 의사일정에 올리려고 노력하고 이로서 개발도상국의 무역에 대한 제재를 합법화 하려는 것이다. 추측에 따르면 각종 형식의 무역보호로 개발도상국에 가져오는 무역손실은 매년 10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선진국이 매년 개발도상국에 공식으로 원조하는 액수의 2배에 이르는 것이다.²⁹⁾

3. WTO의 체계: 중국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게임규칙

2001년 12월11일 중국이 본격적으로 WTO에 가입하여 제143번째의 멤버로 된 것이다. 중국은 세계무역규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용하는 동시에 또한 이에 따르는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WTO에 가입한 후 중

29)王厚雙, 「각국무역정책의 비교」, 2002, p.164.

국의 여러가지 약속의 실행은 중국 대외경제무역이 직면하는 새로운 기회이고 또한 도전이기도 하다.

제3절 중국의 무역정책 선택

1. 중국 WTO가입후

WTO의 가입을 계기로 작업집약형제품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굴하는 것이다.

<표6-5>로 보면 중국이 작업집약형제품에서 여전히 강한 비교우위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비교우위의 원칙을 옹당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고 작업집약형제품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야 하며 중국의 비교우위가 성공적으로 전환되도록 기초를 든든히 하여야 한다.따라서 중국은WTO에 가입한 후 기타 각국의 각종 관세와 비관세적 장벽 예로 방직품의 배정 등이 감소되거나 취소되는 것으로 중국의 작업집약형제품의 수출에 더욱 유리로운 국제적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옹당WTO가입을 계기로 작업집약형제품의 비교우위를 충분히 발굴 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선 경제이익을 중심으로 하고 수출증가방식을 전환시키는 것이다.① 외화수입과 이익효과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 외화수입 제일을 이익효과 지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② 수량과 질량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 질량우선에서 수량을 보증하는 방침을 실시하고 품질제고와 국제적브랜드 수립과 수출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다.③ 가격과 기타경영수단 지간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고 본국의 노동력원가가 저렴하고 제품가격이 저렴한 전통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며 또한 품질,브랜드,서비스 등 새로운 경영수단을 적극 채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산업구조을 우월화하고 규모경제효과와 경쟁효과를 충분히 발

회하는 것이다: ① 업계의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부동한 지역의 동업자들의 연합과 경쟁을 격려하는 것이다.② 종합적인 상회 혹은 수출기업그룹을 설립으로 소형화 분산화의 조직구조를 개변하는 것이다.③ 경쟁질서를 규범화하여 저가격의 경쟁과 부정당한 경쟁행위를 두절하는 것이다.

또한 될수록 연해 발달한 지역의 작업집약형 산업을 내지로 이전하여 내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충분히 이용하고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이다. 원가의 인하는 중국의 작업집약형제품의 우세로 버릴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적극적인 조치로 외국의 불합리한 덤핑반대라는 것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중국이 이미WTO에 가입하였지만 중국의 가입약속에 따라 서양국가에서 중국수출제품에 대한 “비시장경제의 덤핑반대 조약”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15년 내에 여전히 효과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① 중국은 응당 국제적 관례와WTO규칙에 따라 대외무역체계의 개혁절차를 한 걸음 더 빠르게 하여 기본적으로 외국의 덤핑반대 시, 이른바 “비시장 경제국가”와 “정부규제수출”이라는 구실을 해소 시키는 것이다.② 다른 방면의 조치를 결합하여 저가격경쟁과 판매현상을 견결히 두절하는 것이다.③ 외국의 덤핑반대 고발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간의 합작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로하여 가져오는 손실을 최소로 위축시키는 것이다.

2.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무역정책수단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무역정책수단을 채용하여 잠재적 비교우위가 있는 소수의 자본집약형 산업에 대하여 적당한 보호를 실시하는 것으로 비교우위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표6-5>에서 볼수 있는 것과 같이 중국의 자본집약형제품의 비교우위지수는 비록 년마다 제고되고 있지만 비교우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제시장에서 아직은 경쟁력이 구비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의 비교우위를 신속히 이

루어지도록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응당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전제하에 잠재력이 있는 소수의 자본집약형산업에 대하여 적당한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무역정책의 실시 과정에서 응당 유의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

가. 보호하려는 업계의 선택에서 응당 비교우위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다.본 문의 제4부분에서 이미 충분한 논술을 한 것이다.

나. 대외 무역경영정책의 격려와 지지의 중점은 응당 자주적 지식소유권을 육성하고 핵 심능력이 강하며 다국적경영을 운영하는 대회사 혹은 대기업적 그룹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이것은 세계무역조직에 참여한 후 경쟁에 필요되는 것이고 앞으로의 국제무역 발전에 있어서 주요한 추세이다.때문에 국가로는 응당 기업의 합병에 대한 법규를 제정하고 완전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특히 다국적 기업의 합병에 대한 입법은 정책에서 “강한 기업지간의 연합”을 지지하고 대중소기업 지간의 전문분공과 협조를 확립하는 것이다.상업적 유통을 촉진하고 기업으로는 소유권 개혁과 자본운영의 방식으로 기업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를 개척하며 다국적 경영을 발전시키고 경영의 위험성을 막으며 기업의 경쟁력을 증강시키는 것이다.

다. 보호수단의 선택에서 국제적 규칙에 부합되어야 하며 정책수단의 효과적인 보호 정도를 중시하는 것이다. 계무역조직에 가입할 시 기타 국가에서 약속한 미숙산업의 완충기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다. 로 중미 쌍방은 중국의WTO가입 쌍방 합의에서 자동차 공업에 대한 개방조건에 규정하기를 중국의 자동차 총체 한 대의 수입관세를 현재의 80%~100%에서 2006년 25%로 인하 하고 부속품의 평균 관세는 2006년에 이르러 10%로 인하 하는 것이며 2006년에 가서는 수입수량의 제한을 취소하는 것이다. 재의 제한으로 보면 매년 60억 달러를 기본으로 한다면 매년15%씩 체감하는 것이고 2006년에 이르러서는 수량제한을 취소하는 것이다. 그다음 관세세율이 점차적으로 내려

가는 상황에서 관세구조의 우월화를 통하여 관세의 효과적인 보호정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동시에 규칙에 부합되는 비관세장벽 예로 녹색표준과 기술표준 등을 적당히 이용하여 국내 자본집약형산업의 비교우위를 이루는 데 적당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덤핑반대 법”을 완벽하게 하여 외국의 덤핑제품손해를 받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는 것이다.³⁰⁾

라. 구체적인 업계에 보호를 실시하는 동시에 완전히 개방되고 경쟁하는 국내시장을 제공하여 비교우위의 신속한 형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자본집약형업계에 대한 적당한 보호에 대하여 국내시장의 지지가 없으면 비교우위의 신속한 형성과 경쟁력의 제고가 실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가능하게 “보호 미숙 보호”의 길로 실패할 것이다. 국은 폭 넓은 국내시장이 있어 국내시장이 국내제품의 거대한 수요를 통하여 완전히 비교우위의 형성과 경쟁력의 제고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것은 정부의 국내경제체계개혁가속화가 필요한 것이고 국내 계획경제의 잔류와 지방보호주의로 이루어진 시장분할을 타파하며 확실하게 통일, 방, 쟁과 질서있는 국내 대시장을 이루어 자본집약형산업의 쾌속적 발전을 도모하여 비교우위전환의 순조로운 완수를 촉진하는 것이다.

3. 외자정책

중국은 외자이용 과정에서 여지껏 특혜정책을 외자유치의 주요수단으로 하여 왔고 중국의 대외개방국면의 특점으로 출발하여 지역차별적 특혜정책을 실행 하였다. 때문에 개혁개방 이래 중국의 동남 연해지역에 대하여 실시한 특혜정책은 이 지역의 경제를 대대적으로 촉진시켜 거대한 경제발전을 이룬

30) 賴觀榮, 「WTO: 중국의 가맹」, 2002, pp.36-39.

것이다. 다만 동시에 일부적 불량한 결실을 초래한 것이다. 로하여 비교우위 전환수요에 적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나간 지역에 따라 이전하고 산업을 불문하는 “한 칼에 끊는 식”의 외자특혜정책을 조절하고 외자에 대한 지도방향을 부문과 업계로터 출발하여 산업정책을 나타내는 것이다. 재의 전방위적 외자유치 목표를 국가산업정책의 관철로 이전하여 비교우위 전환의 촉진을 주요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한 면으로는 점차적으로 지역적 특혜를 취소하는 것이고 다른 한 면으로는 국가의 산업정책요구에 따라 비교우위 전환의 수요에 적응하여 목적이 있고 중점이 있는 외자에 대한 세무 등 특혜 정책이다.

4. 제도개혁

중국의 산업발전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낮은 효율은 산업기초방면의 원인 외에 더욱 중요한 원인은 제도방면의 장애와 결점이다. 국은 일개 과분하게 산업정책을 중시하는 국가로 산업의 발전은 우선 산업정책의 자극과 제약 혹은 영향을 받는 것이다. 단 계획경제의 여러가지 규정이 취소된 후 중국의 산업관리부문(상당한 일부 경제학자도 포함 함)은 더욱더 산업정책의 효율을 믿게 되는 것이다. 제도경제연구의 시각에서 본다면 일개 좋은 산업정책은 적어도 3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이다. 첫째, 산업 정책의 제정과 산업의 비교이익(우세)이 일치한 것이다. 둘째, 업정책의 집행과 시장의 내부적 수요가 일치한 것이다. 셋째, 업정책의 제정자는 확실한 책임감으로서 티끌의 지역경향성이 있어서는 안된다. 미 결정된 체계환경에서 이 3가지 조건 중의 하나 혹은 둘의 존재는 가능하나 동시에 만족시키는 가능성은 아주 작은 것이다. 때문에 우리들의 대부분 산업정책 특히는 지방정부의 산업정책은 모두가 실패되고 혹은 낮은 효율인 것이다. 국 산업의 비교우위 수립에서 우리들은 응당 기업의 선택과 판단을 믿어야 하고 산업조직의 역할을 믿어야 하며 이

러한 기초에서 비교우위원칙의 산업정책을 수정하고 확립하는 것이고 정부의 경제활약을 규범화 하고 무역원가를 인하하며 시장의 투명도를 증강시키고 산업조직을 완전화 하는 것이 합리적 산업 정책을 탐구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³¹⁾

31)楊聖明, 「중국 대외경제무역 최전역」, 2001, pp.38-42.

제7장 결론

비교우위를 통해 경쟁우위를 할 수 있다. 비교우위를 하지 않고선 경쟁우위를 할 수 없다.

비교우위를 통해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경쟁우위를 이룰 수 있다. 정부의 간섭없이 시장에 적용가능하여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윤을 재투자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비교우위 통해서 경쟁우위에 있는 것은 발전한다. 이러한 발전을 통해 사회의 기반은 튼튼해진다.

중국은 현재 노동집약형 제품에서 자본 집약형을 지나 기술집약형 제품을 수출하는 과도기 단계이다. 앞으로 중국은 10-15년 후 이러한 변화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WTO와 시장의 자유화를 받아들임에 따라 정책의 많은 부분을 수정하여야 했다. 앞으로 중국은 복잡한 정세에 직면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환율인상과 자본시장의 자유화는 중국기업의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해야할 것이다. 앞으로 10-15년 동안 중국 대외무역 발전과정은 광범위하게 영향 받을 것이다.

참고문헌

[중문문헌부분]

- 고우홍예, 「비교원가 설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발전전략의 이론기초로 될 수 없다」, 1982.
- 대위이·거린나위이 주필 황레이 번역; 「국제무역 최전역의 문제」, 2000.
- 라이관룽, 「WTO:중국의 가입」, 1999.
- 린이푸, “발전전략과 경제발전”, 「중국의 기적」, 1994.
- 류리, 「내부지지와 외부개방:개발도상국의 무역전략」, 1999.
- 류쥙리, 「중국제품수출의 구조연구」, 2000.5.
- 류슈우렌, 「동아모델의 조절에 있는 여러가지 문제와 평가분석」, 2000.10.
- 리룽린, 「동태국제무역이론」, 2000.
- 쉬젠빈·인상썬, 「무역조건의 악화와 비교우위전략의 유효성」, 2001.1.
- 왕허우샹, 「각국무역정책의 비교」, 2002.
- 양썬밍, 「중국 대외경제무역 최전역」, 1999.
- 야당·스미, 「국민 재부의 성질과 원인의 연구」, 1992.
- 양판, "비교우위의 동태성과 중국이WTO에 가입하는 정책지도", 「관리세계」, 2001. 6.
- 천자친, 「국제 무역 논」, 1998.
- 천쯔웨이인, 「무역과 증강경험의 연구」, 2001.5.
- 천쯔웨이인, 「동태적 비교우위경험의 연구」, 2002.2.
- 장쇼우젠·양썬밍·황레이, 「중국 대외경제무역 최전역2」, 2001.
- 진저송, 「국제무역구조와 추세」, 2000.
- 주수권, 「비교우위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정책」, 2001.2.

- 탕하이엔, 「국제무역학」, 2001.
- 텐춘화, 「산업정책과 비교우위」, 1998.
- 판아이쥘, 「중국 각종류 수출산업의 비교우위분석」, 2002.
- 포로·커루커먼, 「국제 경제학」, 2002.
- 포로·슬라파, 「리카토 저작과 통신 집」, 1992.
- 홍엔싱, 「WTO조건 하에 무역구조조절과 산업의 격상」, 2001.2.
- 홍엔싱, 「비교우위로부터 경쟁우세까지」, 1997.6.

[영문문헌부분]

- B·Balassa,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Johns Hopkins Press Ltd., London, 1971.
- B·Balassa, 「Comparative Advantage, Trade Policy and Economic Devoipment」,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9.
- Dollar· David, 「Technology Innovation, Capital Mobility, and the Product Cycle in North-South Trade」,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86.
- Ito,Takatoshi, Japanese Economic Development : Are Its Feature Idiosyncratic or Universal ?,paper presented at the Xith Congress of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at Tunis, December 17-22,1999.
- M·P·Todaro, 「Economic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Longman Inc, New York &London, 1985.
- Mordechai E· Kreinn and Elias Dinopoulos, 「Protection of Industry」, Open Economies Review,2001..

- Paul R·Krugman,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and Policy」, fifth edition, Addison Wesley Longman, Inc, 2000.
- Richard Grabowski, 「Import Substitution, Export Promotion, and the state in Economic Development」, The Journal of Developing Areas, 1994, Vol. 28, No. 4.
- R·W·Jones, 「The Structure of Simple General Equilibrium Models」,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73, 1965.
- Tamir Agmon and Mary A·V·Glinow, 「Technology Transfer in International Business」,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 Victor A·Canto and J·Kimball Dietrich, 「Industrial Policy and International Trade」 JAI Press In., 2002.

